



꿈속강산

6

2025년

루게 제 430호 월간



표지: 새 거리에 넘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새로운 건설의 대번영기, 문명개화기가 펼쳐진
화성지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사진 리영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70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서한

2 || **결성세대의 애국정신을 이어 재일조선인
운동의 위대한 새 력사를 써나가자**

10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70돐기념 중앙
보고회 진행

1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16 || 수자로 보는 건설의 대번영기

일화

19 || 위민헌신의 나날에

승리와 영광의 80년

20 || 인민을 위한 당

21 ||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어로 확대하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22 || 보금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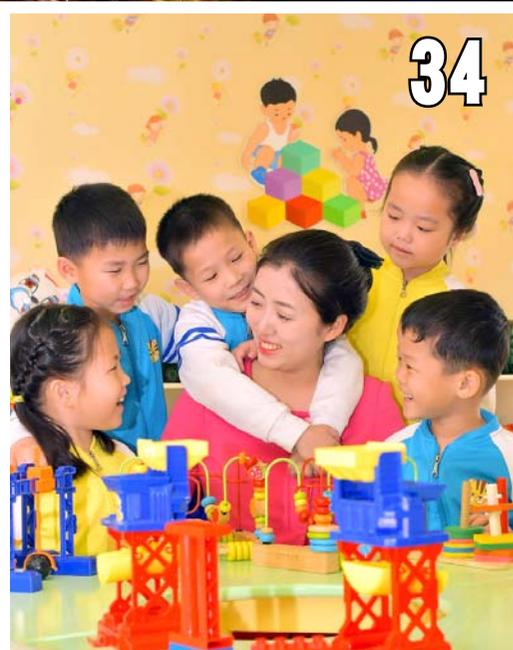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24 || 자기꽃병

수필

25 || 웃음에 대한 생각

26 || 진달래손전화기공장



28 || 기술개건사업에 힘을 넣어

교향소식

30 || 지방중흥과 더불어 변모되는 교장

34 || 밝게 웃어라, 활짝 피여라

대담

37 || 소년단시절과 첫걸음

38 || 보통교육부문에서 이름난 학교

40 || 핵자기공진기술을 리용하여

42 || 불치의 병에 도전한 사람들

44 || 무쇠주먹의 사나이

46 || 무용을 사랑하는 장애인부부

48 || 새로 발견된 이룡동굴

편지

49 || 보고싶은 고모님에게

애국의 넓은 대를 이어

50 || 화폭에 선물을 담은 미술가

민족의 향기

52 || 돌솔송어탕

54 || 《나는 조선에서 진실을 보았다》

력사이야기

55 || 첫 봉건국가의 시조왕 동명왕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56 || 정방산의 옛성터와 성불사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결성세대의 애국정신을 이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위대한 새 역사를 써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70돐에 즈음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신 서한
2025년 5월 25일

친애하는 총련일군동지들!
사랑하는 재일동포 여러분!
세계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라는 긍지로운 명함과 영광의 행적으로 애국애족의 년륜을 새겨온 총련이 결성 70돐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공화국기를 높이 날리며 굴할줄 모르는 조선의 정신과 기상을 과시하여 온 총련은 결성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년대들에 어머니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며 청사에 깊은 자욱을 남기었습니다.
복잡다단한 역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사랑하는 자기 조국에 운명을 엮고 세기와 세대를 이어 민족적애국운동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공적은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습니다.
뜻깊은 총련결성일에 즈음하여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의 험난한 초행길을 앞장서 헤치며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라는 존엄높은 실체를 떠올린 한덕수동지와 리진규, 서만술, 리계백, 리심철, 윤덕곤, 김은순, 박정현, 로재호동지들을 비롯한 첫 세대 총련일군들과 유명무명의 재일조선인활동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총련의 역사적성장을 증견하며 애국

애족의 전위에서 선구적공헌을 하여온 허종만의장동지와 박구호제1부부장동지를 비롯한 총련일군들과 전세대들의 넋을 이어 동포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혈연의 지성을 바쳐가고있는 총련의 모든 기층조직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그마한 사심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바람없이 민족교육사업에 진심을 고여가고있는 총련의 교육일군들과 전체 재일동포들에게도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아울러 총련의 영예와 역사를 자랑차게 이어갈 사명과 열망을 안고 학업에 정진하고있는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귀여운 우리의 재일조선학생소년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냅니다.
이 기회에 총련의 정의로운 활동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성심을 다해 도와주고있는 일본의 량심인들과 후원자들에게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총련의 연혁이 빛나게 조명되는 기념의 날에 나는 공화국정부와 조국인민들의 이름으로 전체 재일동포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총련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족적차별과 불평등이 란무하는 남의 나라 땅에서 재일동포들이 력사의 풍운을 이겨내며 사랑하는 모국과 70년의 일로를 같이하여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 아닐수 없습니다.
세상이 놀라고 민기조차 어려운 일이 가능할수 있었던것은 바로 재일동포들에게 총련과 같은 애국조직이 있었기때문입니다.
해외동포라는 말이 생겨난 때로부터 지구상에는 각양각색의 교포조직들이 존재하여왔지만 총련과 같이 위대한 사상과 전통, 강력한 조직구조와 애국적인 동포군중, 정연한 민족교육체계를 가진 조직체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재일동포들의 생활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총련의 결성은 어제날 식민지약소국의 비참한 수난자들이 진정한 어머니조국의 품에 영원히 운명의 닻을 내리게 한 력사적사변이었습니다.
총련의 결성으로 재일동포들은 이역땅에서 조국을 대신하여 자기들의 존엄과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강력한 조직체를 가지게 되었으며 공화국의 첫 주체적해외교포조직의 일원이라는 고귀한 영예도 지닐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체적해외교포조직의 탄생과 더불어 그 력사의 첫 기슭에서 결성세대들이 간직하였던 리상과 정신이 오늘도 한치의 흔들림없이 후손들에

게로 면면히 이어지고있다는것이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지금 총련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숯눈길에 첫 자욱을 남기었던 1세들도 없고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총련사수의 험로를 헤쳐온 2세들도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
총련의 전성기에 태어나 지난 세기 90년대에 고난을 이겨낸 조국과 더불어 이역땅에서 열정적인 애국활동으로 청춘을 빛내었던 3세들도 어느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속에 많은것이 변하여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소실되지 말아야 할것은 총련결성의 출발점에서 높이 들었던 리상과 정신의 드림 없는 계승입니다.
떠나온 곳에서 멀어질수록 결성초기의 리념과 선대들의 공적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애국정신과 기풍을 줄기차게 이어가야 합니다.
총련의 결성세대가 이룩한 공적중의 가장 큰 공적은 이역땅에서 충실성의 전통, 단결의 전통, 애국애족의 전통을 창조한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재일동포들만큼 인간의 존엄과 강국에 대한 갈망이 간절했던 해외동포들은 아마 없었을것입니다.

지금의 새세대들이 화면과 글줄에서나 찾아볼 민족수난기의 참혹상, 조국이 없었던 탓에 이국땅에 끌려가 노예살이를 강요당하고 생죽음을 당하면서도 어쩔수 없는 숙명으로 간주해야만 했던 불쌍한 조선사람들이 다름아닌 재일동포 1세, 2세들이었습니다.

하기에 이들은 일제와의 결사항전을 선포하시고 20성상의 간고한 투쟁으로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절세의 애국자로, 민족의 은인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절대의 믿음이 있었기에 총련의 첫 세대는 공화국창건을 경축하기 위해 쪽배를 타고 풍랑사나운 동해창파를 헤가를수 있었고 신성한 우리 국기를 자랑높이 휘날리기 위함이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었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에는 주저없이 평양행을 택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총련의 결성세대는 단결의 전통, 애국애족의 전통을 창조하여 화목하고 힘있는 동포사회의 자양을 마련하고 총련의 빛나는 전성기를 안아왔습니다.

오늘도 조국인민들이 기억하는 총련의 모습은 손에손에 공화국기를 들고 은혜로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감격에 울던 재일동포들과 애국적 상공인들의 이름으로 불려워진 창조물들, 충성의 붉은 편지를 안고 달려오던 조청원들의 흐름입니다.

결성세대가 후손들에게 이렇듯 고귀한 전통을 정신적유산으로 물려주었기에 총련은 오랜 세월 모진 풍파속에서도 굳건히 자기의 본색과 본태를 순결하게 고수할수 있었습니다.

총련결성세대는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편견으로 가득찬 민족배타주의가 지배하는 속에서도 조선사람의 존엄과 권익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었습니다.

존엄과 권익은 한치도 양보할수 없는 민족의 자존심이기애 선대동포들은 권익옹호투쟁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으며 이 나날 피의 교훈과 고귀한 전통을 유산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재일조선인운동사에 애국적장거로 기록된 4.24교육투쟁과 센다이국기계양사건, 거족의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해외교포운동사상 처음으로 대집단체조는 물론 가극까지 창조하여 세인을 놀래웠던 선대들의 장거에 의하여 굴함과 한계를 모르는 조선사람들의 기개가 온 세상에 더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말단기층조직, 계층별 군중단체들과 산하 단체, 사업체와 민족교육거점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부러워하는 총련의 강건한 모습은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강의한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증례로 됩니다.

지금도 동화와 귀화를 허용하지 않고 자손들의 녀속에 조선민족의 얼을 부어주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은 계속되고있습니다.

총련결성세대가 이룩한 공적중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민족교육의 본보기적인 력사와 전통을 마련한것입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는 민족교육의 력사이며 결성세대가 민족교육에 바쳐온 무한한 헌신성을 떠나 총련애국위업의 굳건한 계승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모진 세월속에서도 버리지 않았던 자녀교육의 꿈을 이루고저 재일동포들은 해방후 조직건설에 앞서 학교건설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땅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우리 학교의 종소리는 그대로 동포들의 가슴속에 조선사람의 녀과 정신을 새로이 심어주고 민족적자각을 흔들여 깨워준 애국의 울림이었습니다.

총련의 민족교육은 후대들을 사랑하고 미래에

정성을 고이는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가를 조선학교의 실체로써, 이역땅에서도 어엿한 조선사람으로 밝게 자라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력사앞에 생생히 증언하고있습니다.

나는 자본주의일본땅에서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위축되지 않고 조직적토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면서 애국사업을 배심있게 밀고나가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총련에 대한 자부와 함께 그 어느 나라 해외교포들도 못가본 미증유의 길을 굴함없이 헤쳐온 총련결성세대애 대한 존경심에 가슴이 절로 뜨거워집니다.

평온한 환경과 유족한 조건에서가 아니라 최악의 극난속에서 마련된 결성세대의 전통이 후대들이 걸어갈 애국애족의 대로우에 값비싼 포석으로 깔려있기에 총련의 자랑찬 력사는 영원 불멸할것입니다.

전통의 계승은 정신의 계주이며 보다 훌륭한 력사의 창조입니다.

결성세대가 유산으로 남겨놓은 애국전통들은 비단 력사책의 기록이 아니라 계승의 사명을 지닌 후손들의 정신에 깃들고 그들이 가꾸어가는 동포사회의 모습에 비끼게 됩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와 전통애 대한 교양을 부단히 강화해야 하는것도, 새세대육성을 중시하며 계속 꾸준히 품을 들여야 하는것도 총련의 사상정신적계승을 확고히 담보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는 지나온 년대들과 마찬가지로 총련을 중시하고 보호하며 그 지위를 공고화해나가는것을 변함없는 전략적과업으로 제기하고 시종일관 견지해오고있습니다.

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수백만 당원들의 의사를 모아 해외동포들의 민족적권익옹호를 조선로동당규약애 명기하고 공화국제헌사상

처음으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발포한것은 재일 조선인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영원한 보호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할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 부동한 의지의 발현으로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의 합법적권리를 지켜주고 재일조선인들에게 보다 큰 존엄과 영광을 안겨 주기 위함에 모든것을 다해나갈것입니다.

공화국의 권위있는 해외동포조직으로 자랑스러운 70년사를 아로새겨온 총련은 지금까지의 수고와 노력을 자축하며 정제할것이 아니라 백배해진 용기와 투지로 영광넘친 애국사를 백년, 천년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총련결성 80돛까지의 10년간을 새로운 투쟁기로 내세우고 총련을 동포대중을 위하여 참담게 복무하는 동포제일주의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확실한 진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총련은 새로운 투쟁기에 한해한해의 발전계단을 착실히 밟으면서 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새세대들을 훌륭히 키워내며 동포사회의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해나가야 합니다.

권익옹호, 새세대육성, 민족성고수는 총련이 일관성있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3대주력사업입니다.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익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의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과감한 투쟁을 벌려 반드시 성공적결실을 안아와야 합니다.

재일동포들이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려왔지만 교육권, 기업권, 모국자유래왕권을 비롯한 핵심리익은 여전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조국애 자유롭게 오갈수 없는 가슴아픈 상황이 지속되고있으며 일본국민들과 똑같이 세금납부의무를 리행함애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고교무상화》나 《유보무상화》와 같은 교육제도적용에서 배제되는 비극적현실이 근절되지 않고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재일동포들이 차별의 악순환속에서 삶과 미래를 위협당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총련에서는 전체대회들을 기점으로 권익옹호투쟁을 단계별로 확산시켜 동포들에게 보다안정되고 향상된 생존권과 발전권이 실제적으로제공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이 옹호고수하고 확대해야 할 첫째가는 권익은 다름아닌 민족교육의 권리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동포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환경을 보장하자고 해도 민족교육의 권리문제는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총련의 최고권익입니다.

총련에서는 모든 동포가정들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응집되어있는 민족교육옹호투쟁을 계속확대발전시켜나가며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여 동포자녀들의 어린마음속에 절대로 그들이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교육의 권리와 함께 빼앗기고 침해당한 모든 권리들을 되찾아야 하며 동포들의 존엄과 생존이 달린 문제라면 경중을 가리지 말고 전동포적투쟁을 벌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동포상공인들의 경영활동에 가해지는 부당한 간섭과 규제, 민족적차별 등 기업권침해행위들에 대하여 추호도 양보함이 없이 견결히 대항하며 동포기업의 리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총련에서는 굴함없는 투쟁으로 조국에로의 배길을 열고 그것을 완강히 지켜온 선대들처럼 전 동포적인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조직전개하여 조국래왕의 배고동소리가 동해의 창공

에 다시 기운차게 울려퍼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합법적이며 정의로운 민족권리옹호사업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조직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일본사람들과의 친교와 화목을 두터이 함으로써 자기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총련애국위업의 바통을 이어나갈 새세대들을 활기있고 명량하고 대바르게 키워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력사와 전통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를 넘겨받을 세대가 준비되어있지 못하면 계승은 고사하고 조직자체의 조락을 피할수 없습니다.

조국에서 어머니대회, 소년단대회를 당대회 못지 않게 중시하는것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참되게 키워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굳건히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정초에 설맞이공연에 참가하였던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을 만나본것도 그들이 총련의 다음세대를 이끌어나가는 참된 애국의 계승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고 총련의 력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될 올해에 새세대육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총련에서는 민족교육을 통하여 애국적이며 우수하고 책임감있는 총련의 다음세대를 공들여 건강하게 키워내야 합니다.

민족교육에서 기본은 조선학교를 통한 정규교육망에 더 많은 동포자녀들이 망라되어 우리말과 글, 민족문화를 배우고 애국심을 배양하며 동포사회의 관심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사회에 만연되고있는 출생률저하와 같은 소자화현상의 영향과 자금부족 등의 리유로 적지 않은 조선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총련에서는 우리 학교들의 형편을 구체적으

로 료해장악하고 동포들의 의중도 귀담아들으면서 적실한 대책들을 시급히 따라세워야 합니다.

모든 조선학교들을 동포자녀들의 리상적인 배움터, 인간육성의 훌륭한 교정으로 만드는것은 민족교육이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기서도 기본은 조선대학교의 교육토대강화입니다.

명년에 조선대학교는 창립 7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학제를 합리적으로 정비개편하는 한편 학생위주의 교육조건, 학습조건,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눈에 띄는 개편을 가져옴으로써 조선대학교를 동포학생들 누구나 지망하는 권위있는 명문대학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각급 조선학교들이 교육사업뿐 아니라 학생교양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옳바른 성장을 위한 학생교양은 지식전수보다 중요한것만큼 학교생활, 소년단활동, 조청활동이 학생들의 애국애족의 마음을 싹틔우고 자래우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공간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조직들과 동포들은 새세대육성을 자기본업으로, 소관으로 떠안고 정성과 지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모든 학생소년들에게 해마다 새 교복을 입혀주고 새 책가방을 메워줄 때도 그렇고 전국의 학교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할 때도 언제나 떠나지 않는것은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총련의 전 조직과 동포사회가 스승이 되고 학부모이 되고 후원자가 되어 애국위업의 미래인 학생소년들을 위해 정성을 다함으로써 우리

동포자녀들이 항상 가슴퍼고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조직과 동포사회의 미래는 어머니들의 마음에 떠받들려 훌륭히 가꾸어지게 됩니다.

나는 재일동포어머니들이 강인하고 결곡한 조선의 어머니답게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민족교육사업의 증흥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자녀들의 소중한 꿈과 미래를 활짝 꽃피워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열리게 될 어머니대회와 소년단대회에 재일동포어머니들과 재일조선학생들을 참가시켜 조국의 어머니들, 학생소년들과 소중한 경험도 나누고 앞으로의 사업도 의논하면서 총련의 밝은 미래를 자기 손으로 넓혀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민족성은 오늘날 동포들사이 화목과 단합, 뉴대를 공고히 하고 애국애족으로 떠미는 동포사회의 공통분모입니다.

총련에서는 민족성고수의 훌륭한 바통을 이어 전 동포적인 민족문화운동으로 동포사회 어디서나 민족의 넋이 살아숨쉬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문화운동은 마땅히 새세대들이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고상한 미풍양속에 대하여 더 잘 알고 빛내어나가도록 하는데 집중되어야 할것입니다.

총련에서는 민족적우수성을 귀중히 여기는 동포들로 민족문화보급협회와 같은 비상설적인 조직체들을 만들어 민족전통에 대한 보급과 선전활동의 령역을 다방면에 걸쳐 확대함으로써 민족성고수에 저해로 되는 동화와 개량을 막고 동포사회의 뿌리를 더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문예단체들이 힘있는 창작활동, 예술활동으로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고수를 선도하여야 합니다.

금강산가극단과 지방가무단들에서는 전세대

동포예술인들의 뜻을 이어 동포들의 민족적 감정을 독려하고 애국운동으로 불려일키는 예술 창조활동으로 동포들이 사는 곳마다에서 민족적 흥취가 넘쳐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술단체들과 함께 각종 문예소조들의 활동과 다양한 형식의 문화예술축전도 장려하여 총련의 문화, 총련의 예술이 새로운 개화기를 맞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포단합에서 큰 몫을 하는 군중문화체육사업으로 민족성고수투쟁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민족체육경기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의 체육 활동으로 동포들사이 단합을 굳건히 하고 우수한 재일조선체육인들을 공화국의 국가대표선수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 그들이 국제경기장에서 민족의 기상을 떨치고 우리의 국기를 창공 높이 휘날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의 새로운 투쟁기는 그에 상응한 백방의 용기와 분발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결성세대의 리상과 정신을 이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위대한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할 주인은 동포대중입니다.

총련사업의 기치와도 같은 동포제일주의라는 말에는 일군들이 동포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라는 뜻과 함께 동포들이 총련사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재일동포들은 총련조직의 기반이며 애국의 무궁한 힘입니다.

모든 동포들은 총련사업의 주인은 총련일군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떠밀어나가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총련강화를 위한 새로운 투쟁기의 성패는 총련일군들의 역할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악전고투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를만큼 동포사회에서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것은 총련

일군들입니다.

한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자기만을 위한 생을 살수도 있지만 조국과 조직앞에 다진 맹약을 지켜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조차 물리해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동포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애국자중의 애국자들이 우리의 총련일군들입니다.

총련일군들은 조국과 조직의 기대와 믿음을 소중히 새겨안고 애국애족의 길에서 신념과 지조를 굽힘없이 용감히 싸운 전세대 일군들의 모습에 자신들을 비추며 동포대중을 위한 헌신분투의 길을 곳곳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결성세대는 동포들앞에 한없이 성근하고 동포들을 위한 고생을 천직으로, 보람으로 여기였으며 동포들의 권익과 안녕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성실한 심부름꾼, 헌신적인 복무자였습니다.

총련일군들은 결성세대가 지녔던 주체적해외 교포조직의 일군다운 고상한 도덕품성과 뜨거운 인정미,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천차만별의 동포들모두를 보듬어안고 진정을 바쳐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동포들과의 사업에서 사소한 꾸밈이나 형식주의적요소도 철저히 경계하며 참신하고 세련된 일본새와 작풍, 다방면적인 실무능력과 활동성을 겸비한 유능한 일군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총련일군동지들에게 재삼 부탁드립니다.

총련일군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생의 가장 값높은 명예로 간주하고 재일동포들을 성심 다해 섬기고 받들며 그들의 복리를 위해 아글타글 애쓰며 뛰고 또 뛰는 진정한 복무자, 친혈육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언제나 고마운 우리 총련일군가족들에게도 꼭 하고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동포사회의 단합과 리익을 위하여 한몸바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총련일군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것은 사랑 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성원입니다.

나의 마음까지 합쳐 총련일군들의 건강을 잘 돌보아주고 뜻과 정을 같이해나감으로써 동포사회의 《가화만사성》이 총련일군들의 가정에서부터 울려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총련조직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애국주의정신과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닌 참된 조선사람이 되도록 꾸준히 교양하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급진적으로 향상되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이 떨쳐지고있는데 맞게 애국주의교양을 우리 민족제일주의교양과 결부하여 보다 실속있게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새세대들을 비롯한 동포들이 천만번 듣는것보다 조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감할수 있게 여러 기회에 조국방문을 실현해주어 그것이 곧 애국자로 완성해나가는 수양과 성장의 필수공정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건설하고 지키고자 하는 나라는 조국인민들과 함께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전체 해외동포들이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존위를 지니고 무탈하여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강국입니다.

언제나 해외동포들의 평안을 최중시해온 우리 공화국정부는 국권사수의 확실한 담보와 절대적인 강대성으로 전체 조선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그 길에서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할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사람의 근본을 잊지 않고 조국과 동포사회를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마음기울여 주는 동포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국적에 관계없이 위대한 우리 인민의 일원으로 품어안아 지켜주고 보살피며 강국의 존위와 영리를 함께 누리나갈것입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자기들의 뒤에는 언제나 강대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는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가슴을 짝 펴고 뚝뚝하게, 당당하게 생활과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하며 순결무구한 마음으로 어머니조국과 총련조직을 받들어야 합니다.

총련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자신들의 삶의 러전인 동포사회와 총련조직, 우리 학교를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가도록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특히 신진세대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뜨거운 애착심을 가지고 동포사회의 권익과 총련조직의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약하는 새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인공으로 알차게 키워야 합니다.

올해 결성정주년을 맞이하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에서 동포청년들이 애국의 전위답게, 젊은 주력군답게 용솨는 힘과 슬기를 떨치며 애국애족의 새로운 본보기를 창조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의 앞으로의 로정에는 불피코 험치 않은 도전들과 어려움이 막아나서겠지만 위대한 재일조선인운동사상이 있고 강대한 조국과 애국적인 동포대중이 있는한 총련결성세대가 그려보았던 총련의 미래는 현실로 될것입니다.

어머니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며 창창한 미래로 가는 총련의 힘찬 보무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을것이며 그 성스러운 려정은 우리 공화국의 높은 존위와 더불어 찬연히 빛나게 될것입니다.

조국은 언제나 총련을 잊지 않고 총련은 언제나 조국을 생각하면서 강대한 총련을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해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전체 재일동포들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 *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7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7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지난 5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운석동지, 내각부총리 전승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선권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최희태동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관계부문 일군들, 총련연고자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총련 후가이드본부 위원장

정성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총련결성 70돐 재일본조선인감사단 성원들, 체류중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강운석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재일조선인운동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애국애족의 장로우에 값높은 생의 자욱을 새긴 첫 세대 총련일군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하고 애국선대들의 넋을 이어이역의 온갖 도전과 시련속에서

도 대를 이어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려가고있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었다.

그는 류다른 애착을 안겨주는 총련이란 부름과 더불어 5월 25일은 우리 국가의 모든 기념일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사람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의의깊은 날로 조국청사에 기록되어있다고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70년전 자본주의일본땅 한복판에서 전체 재일동포들의 념원과 총의에 따라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가 결성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재일동포들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사변이고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은 위대한 첫 출발인 총련결성이 온 세상에 선포됨으로써 재일동포들은 자주적 존엄과 권익을 진정으로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참된 어머니 조직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주체의 향로따라 전진하는 민족적애국운동의 장엄한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복잡다단한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 주체와 애국의 산아로 첫 출범의 닳을 울린 총련은 지난 70년간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전위에서 선구자적인 분투와 활약으로써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송고한 력사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하여왔다고 강조하였다.

순탄치 않았던 년대기들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 전진과 동포사회의 평온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으며 적대세력의 끈질긴 탄압과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일편단심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이역땅에서 총실성의 전통, 단결의 전통, 애국애족의 전통을 창조하고 후대들에게 훌륭한 정신적유산으로 물려준 총련결성세대의 공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이 계시고 강대한 조국이 있어야 해외동포들의 참된 삶과 존엄도 있다는것을 재일조선인운동사에 말로써가 아니라 피와 땀으로 새겨놓

은 애국애족의 선구자, 참다운 조선사람들이 결성세대가 있었기에 총련은 자기 산하에 각급 조직들과 계층별 군중단체들, 사업체들을 튼튼히 꾸리고 정연한 민족교육체계를 세워놓을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역의 광란적인 차별과 류혈적인 탄압속에서도 일본 각지에 우리 학교들을 일떠세우고 목숨다해 공화국기를 지켜내며 번영하는 조국의 역세고 줄기찬 전진을 위해 애국지성을 아낌없이 바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공헌을 조국과 후대들은 영원히 기억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며 력사의 모든 풍파를 다 막아 총련을 애국충정의 모범, 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그는 총련과 재일동포들과 같이 애국적이고 헌신적인 해외동포조직, 해외동포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과 조선인민의 자랑이며 긍지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재일조선인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공화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전면적 발전의 새 전기와 더불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지위는 영광의 단상에서 더 높이 떨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재일동포들을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으로 뜨겁게 품어안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우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주신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해마다 총련에 새해축전과 서한들, 축하문들을 보내주시어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고무적 힘을 안겨주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헌신한 첫 세대 총련일군들의 삶을 영생의 언덕에서 빛내여주시었다고 강조하였다.

민족교육의 생명수인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력사가 변함





없이 이어지도록 하시고 조국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총련의 대표단들을 남먼저 불러주시며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 새세대들을 한품에 안아 세상이 부럽도록 내세워

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가 흐르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총련결성 일흔돐을 맞이하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서한 《결성세대의 애국정신을 이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위대한 새 력사를 써나가자》를 보내주시어 총련의 자랑스런 애국사를 만대로 이어나갈수 있는

필승의 방략을 또다시 안겨주시었다고 말하였다.

총련의 머나먼 미래를 내다보시며 그려주신 총련강화의 설계도에는 사회주의강국의 룡성번영과 함께 총련의 번영

도 안아오시려는 위대한 수령, 친근하신 아버지의 원대한 웅지가 그대로 응축되어있다고 하면서 그는 운명과 미래도 억척으로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이 세상 제일 강하시고 자애로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여기에 재일동포모두의 가장 빛나는 존엄과 영예, 무궁한 행복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앞으로도 강대한 국력으로써 귀중한 총련을 백방

으로 보호하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다 큰 존엄과 영광을 안겨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 공화국정부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강국의 해외 동포조직으로서 자랑스러운 70년사를 아로새겨온 총련의 성스러운 전진은 보다 백배해진 용기와 강인담대한 분투를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번 역사적서한에서 가르쳐주신대로 총련은 결성 여든돛을 향한 10년간을 새로운 투쟁기로 내세우고 총련을 동포들을 위하여 참담게 복무하는 동포제일주의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실제적인 변화와 확실한 진전을 가져옴으로써 결성세대가 그려보던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위대한 새 역사를 계속 써나가야 한다.

강대한 어머니조국과 더불어 성스러운 전통에 떠받들려 전진하는 총련애국위업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진함을 모르는 어머니조국의 따사로운 사랑속에 창창한 미래에 가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충성스러운 역사는 계속될 것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애국으로 단결된 총련의 줄기찬 전진을 멈춰세우지 못할것이다.

보고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더 강해지고 번영할 총련의 미래를 위하여, 화목하고 유족하고 힘있는 동포사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굴할줄 모르는 조선사람의 기개를 떨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총련결성 70돛 재일본조선인감사단 단장 정성한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재일조선인운동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정력적인 령도, 자애로운 아버지 사랑으로 총련애국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언제나 총련애국위업을 성심다해 적극 지지성원해주고 총련결성 일흔돛을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안고 따듯이 축복해주고 있는 조국인민들에게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는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해외 교포조직들도 많지만 70성상의 장구한 기간 애국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단결과 투쟁의 전통을 곳곳이 이어온 교포조직은 오직 총련뿐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충성과 애국의 년륜을 새겨온 총련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 애국애족의 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전면적국가부흥의 거창한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힘이 진하면 힘을 주시고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있어 이역의 환경속에서도 총련의 자랑스러운 본태를 굳건히 지켜올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총련결성 일흔돛을 맞으며 총련중시의 뜻과정이 진하게 습배여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받아안은것은 남다른 특전이고 최고의 영예이라고 하면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애국의 천만리를 역세계 걸어나갈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어머니조국을 받들고 따르는 길에 참다운 애국이 있으며 그 길만이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이라는것은 총련 70년사의 빛나는 총화인 동시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억척불변의 신념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강대한 어머니 내 조국에 운명의 피출을 잇고 사는 조선사람답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총련애국위업을 만대로 이어가며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역사를 자랑차게 써나감으로써 총련의 긍지로운 70년사를 백년, 천년의 애국사로 이어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끝없는 충성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총련의 강화발전과 재일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조국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 존엄의 대표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였다.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도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결성 70돛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주체와 애국의 산아로 첫 출범의 닳을 올린 때로부터 총련은 지난 70년간 이역의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일편단심 어머니조국만을 믿고 따르며 조국과 역사앞에 불멸할 공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지나온 세대기들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절세위인들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적대세력의 끈질긴 탄압과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과 동포사회의 평온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 후세에 길이 남을 본보기적 령사와 전통을 창조하였습니다.

총련의 발전행로는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애국애족의 길에 정의와 진리가 있고 해외교포들의 참된 삶이 있음을 힘있게 확증한 긍지높은 령정이였습니다.

절세위인들의 영원한 축복속에 위대한 강국의 해외동포조직이라는 고귀한 명함을 빛내이며 창창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의 개척세대, 총련의 결성세대가 지녔던 충성과 애국의 정신을 이어 총련애국위업의 자랑스러운 령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25년 5월 25일

평양

수자로 보는 건설의 대번영기

지난 2월 16일 수도 평양에서는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 건설은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수도 건설 5개년계획의 완결단계사업인것으로 하여 그 의의는 자못 크다. 그것은 이 4단계사업이 조선로동당이 인민앞에 다지고 드림없이 리행 해온 결정을 완벽하게 결속짓기 위한 올해의 가장 중차대한 사업으로 되기때문이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건설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어 화성지구가 인민의 행복하고 문명한 삶의

터전으로만이 아니라 불굴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새로운 기적이 깃든 력사의 땅으로 그 이름 더욱 빛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새로운 기적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에는 지난 4년간 살림집건설이 해마다 한치의 어김도 없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온것처럼 이번 건설에서도 또다시 더 큰 기적을 창조하여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는 불같은 사랑의 세계가 담겨져있다.

평양시 살림집건설부문은 지난 4년간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목표뿐 아니라 전망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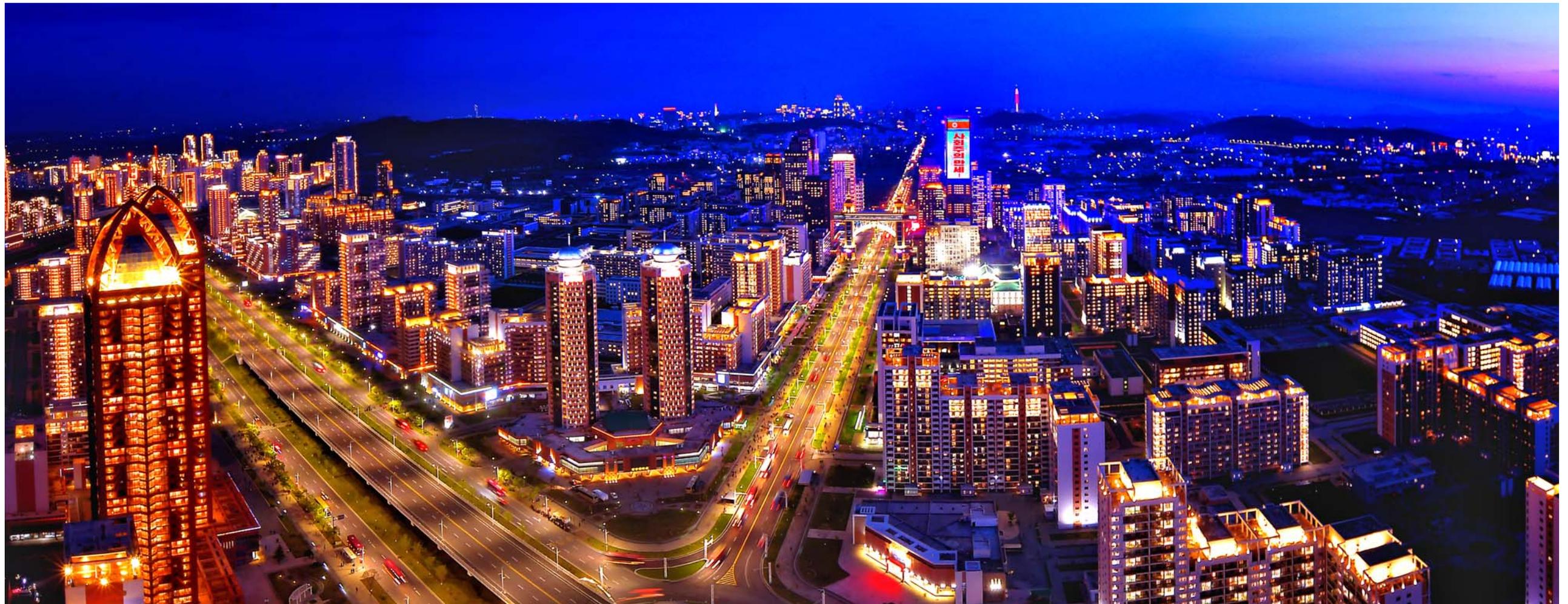
요구까지 추가된 속에서 해마다 에누리없이 무조건 관철해온것으로 하여 가장 안정적으로 급속한 장성을 이룩하는 부문으로 되었으며 2024년에 그 장성률은 2020년에 비해 391%라는 놀라운 경지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지난 시기 건설성과들에 비해볼 때 근 4배에 달하는 수자이다.

실지로 이 기록은 수도의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의 첫 서막으로 된 송화거리 살림집건설 (2021. 3-2022. 4.)에서부터 창조되었다. 50여 정보의 령역에 8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하여

1만세대의 다양한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여러 봉사시설 등 방대한 량의 건설대상들이 단 1년만에 자기의 첫 실체를 드러내었다.

런이어 송화거리의 3배나 되는 150여정보의 부지에 백수십만㎡의 연건축면적을 가진 수백동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등을 건설해야 하는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건설(2022. 2-2023. 4.)도 1년안에 완공되었고 완전히 두개의 새 도시지구와 맞먹는 화성지구 2단계 림흥거리건설과 서포지구 전위거리건설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어 수많은 수도



시민들이 현대적인 새집들에 보금자리를 폈다. 거의 해마다 수도에 하나의 새 거리가 일떠서던 때는 옛일이 된듯 한해에 두개의 거리를 동시에 일떠세우는 새로운 건설신화들이 창조되었다.

이 나날 건설자들은 철근 및 휘틀조립시간을 12시간에서 5시간으로, 아빠트 한개층의 골조 시공시간을 36시간에서 14시간으로 단축한것을 비롯하여 이전의 기존공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건설속도들을 련이어 창조하였다.

1단계, 2단계와는 또 다른 새로운 양상의 건축군으로 설계된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건설도 지난해 2월에 착공하여 1년만인 올해 4월에 훌륭히 완공됨으로써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고 현재 4번째로 되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착공이자 곧 준공이라는 말이 통용될만큼 수도 평양에서는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다.

하다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지금으로부터 4년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버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라고, 당과 정부는 수도의 살림집부족 세대수를 장악하고 그 해결대책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이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최중대과업으로 간주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살림집은 국가의 부담으로 건설되고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배정되는것으로 하여 사실상 이것은 막대한 비용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언제나 모든 정책들의 맨앞에 놓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함이라면 설사 억만금이 든다고 해도 최고의 리익으로 여기는것이 우리 당의 계산법이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

하기에 애로와 난관이 중첩되고 국력강화의 대업과 여러 분야의 혁신적변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긴장한 속에서도 조선로동당은 수도의 살림집문제를 잠시의 중단도 없이 그것도 전례없이 통이 크게, 독특하면서도 현대적인 양상으로 립체적으로 전개하였다.

오늘 살림집건설은 평양시뿐 아니라 전국의

시, 군들에서도 진행되고있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위한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대상건설들이 활기차게 벌어지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2024년 2월 성천군 지방공업공장의 착공을 시발점으로 하여 해마다 수십개의 지방공업공장들이 건설되고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대적인 보건 시설과 종합봉사소, 량곡관리시설건설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지방의 자연경제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리용하기 위해 이미 꾸려진 현대적인 신포시 바다가양식사업소보다 더 훌륭한 사업소를 락원군에 건설하는것과 함께 이미 완공된 강동종합온실농장과 중평온실농장 등과는 대비도 안되는 450정보나 되는 최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을 신의주시 하단리와 의주군 서호리지역에 건설하고있다. 그것도 1년안에 완공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국가가 현시기 구상하고 실행하고있는 건설의 폭과 량은 지난 시기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조선로동당이 이와 같은 전례없는 혁명적인 결행을 내리게 된것은 앞으로 20~30년을 기한부로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리상국으로,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며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락원으로 건설하러는것을 목표로 하고있기때문이다.

하기에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김정은령도자는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즉시 구상하고 즉시 건설하며 즉시 내놓는다. 반년안에 설계로부터 준공, 정말 기적이다.》

《조선에서는 집걱정을 하지 않으니 정말 부럽다. 인민의 행복이 곧 나라의 행복이다.》...

391%, 이것은 단순히 4년간의 평양의 건설 성과만을 전하는 기록적인 수자가 아니다.

이 수자에는 인민을 위함에 자신의 모든 구상과 실천을 놓으시고 끊임없이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열화같은 헌신과 더불어 비약해가는 조국의 발전상이 다 비껴있다.

인민에게 이 세상 제일 큰 행복과 문명을 안겨 주시려는 위대한 아버지의 진함없는 멸사복무의 려정이 있어 앞으로 이 땅에는 날에날마다 더 큰 실체들이 떠오를것이다.

* * *

일 화

위민철선의 나날에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힘으로

2013년 9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느날 돌가공공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금방 가공하여 가득히 쌓아놓은 화강석란주들을 만족하게 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맨우에 놓여있는 란주를 손으로 쓸어보시며 정밀하게 가공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공장의 한 일군이 그이께 방금 가공한 제품이어서 돌가루가 많이 묻어있다고 말씀올렸다.

그러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돌가루가 있으면 뭐라는가고,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석재를 가지고 생산한 이런 훌륭한 제품들을 어떻게 보기만 하겠는가 하시며 돌가공품을 정히 쓸어보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돌가공품들이 쏟아져나오는것을 보니 신심이 생기고 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였다.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힘으로 이 땅우에 솟아난 인민의 재부는 이렇게 마련되였다.

건축인재양성기지에 새겨진 자욱

2013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건축대학을 찾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대학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도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대학의 명예총장이 되겠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교육과학전시관, 건축설계실, 미술실기실, 외국어시청각실도 돌아보시였다.

건축설계실에 들리시여 학생들이 리용하고있는 컴퓨터들을 보아주시실 때에는 설계를 하려면 컴퓨터기종이 높아야 하므로 더 좋은 컴퓨터들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평양건축대학은

건축인재양성의 거점인것만큼 대학을 꾸리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교육현대화의 신호탄이 이 대학에서 오르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미술실기실에 들리시여서는 학생들이 속사하는 그림을 보아주시면서 앞에 앉은 두 학생의 그림들을 보면 하나는 비례가 비슷하고 다른 하나는 자세가 비슷하다고 잘된 점을 먼저 찾아주시였고 뒤에 앉은 학생은 속사하는 대상의 특징을 비슷이 뽑아내었다고 평가해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대학의 일군들에게 모든 건축설계를 자기 지방,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데 대한 문제, 건축에서 색을 중시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건축발전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소한 결점도 있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8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주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이날 건설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의 질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신 그이께서는 지방공업혁명의 첫해부터 전국의 20개 시, 군들에 일떠서는 산업시설들은 우리식 문명과 발전의 직접적표현의 실체들이며 이는 우리의 량심과 리상, 우리의 분발력과 투지 그 모든것이 그대로 비껴있는 축도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의 재부로 길이 남을 창조물에는 사소한 결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그루를 박아 강조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건축물은 자그마한 흠도 없이 완전무결한 최상의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이의 절절한 당부를 새겨안은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 * *

인민을 위한 당

조선로동당의 80년의 력사에는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서의 영상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어머니당이라는 의미는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듯이 돌봐주듯이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 보호자라는 뜻이다.

그러면 조선로동당에 있어 인민의 운명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것인가.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고 낮과 붓을 아로 새긴 때로부터 인민과 한시도 떨어져본 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왔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조선로동당의 모습은 우선 인민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빛내여 주는데서 표현된다.

조선로동당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그늘 한점 없이 생활하도록 정치적생명을 보살펴주고 빛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정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사회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빛내이면서 값높은 정치생활을 누리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자주적 존엄과 운명을 전결히 수호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전쟁과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항시적인 침략위협으로부터 인민의 운명을 구원한 조선로동당은 오늘 국가핵무력 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여 공화국의 군사기술적강세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어 인민의 자주적존엄을 지켜주고 빛내여 주고있다.

렬강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인민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된것은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위하여 이룩한 가장 큰 력사적승리이다.

조선로동당은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뿐 아니라 방역위기와 자연재해로부터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우리 당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어서라도 인민의 삶과 행복을 위협하는 인자들을 억제하고 다스릴수 있는 강력한 힘을 비축하는 사업을 최우선중대사로 내세우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왔다.

뜻밖의 재난을 당한 인민의 아픔을 가셔주기 위해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이고 돌발적인 보건사태속에서도 당은 인민의 생명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었다.

각각각 위험이 닥쳐오는 피해지역에서 인민들 마지막 한사람의 생명까지도 지켜주고 침수누에 벗어선 야전렬차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열리고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보건 위기속에서도 인민들의 무병무탈을 위해 국가의 인적, 물적잠재력이 총동원된것은 인민을 위한 고생을 천분으로 여기는 우리 당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조선로동당은 또한 인민들에게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있다.

우리 당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속에서 인민에게 평등하고 훌륭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었으며 로동의 권리, 배움의 권리, 창조와 향유의 권리를 다 안겨주었다.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당과 정부가 온 나라 학생들의 필수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것과 같은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은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위민헌신의 리념의 빛나는 구현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것을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제일중대사로, 본분으로 하고있다.

어머니당이라는 특유의 명예칭호와 명함으로 국가의 인민적 성격을 굳건히 고수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은 오늘 명실공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으로 빛나고있다.

글 김성경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전쟁이었다.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무장활동을 국내에로 확대시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전민항쟁에 의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는것을 기본전략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1933년 3월 11일 국내의 온성지구에서 소집된 왕재산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후 1936년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진행된 남호두회의와 1937년 3월의 서강회의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로 진출시키며 투쟁무대를 국내에로 확대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이 제시되고 그에 따르는 대부대에 의한 첫 국내진공작전계획이 토의결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1937년 6월 4일에 진행한 보천보 전투는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그 의의는 일본군을 몇명 죽인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준데 있다.

보천보전투소식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북부조선에 유격대 진출》, 《조선국경에서 유격대 활동》 등의 표제를 달고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의 승리를 광범히 보도하였다. 이에 질겁한 일제는 황급히 대병력으로 추격해왔다. 그러나 적들은 6월 5일 장백현 구시산 전투와 6월 30일 간삼봉전투에서 또다시 큰 참패

를 당하고말았다.

그후 백두산지구진출작전, 백두산서남부일대에서의 유격작전, 국내진공작전 등 수많은 대부대기동작전들은 《천하무적》이라고 떠들어대던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 식민지 통치기반을 밀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1939년 5월에 단행하신 무산지구전투는 보천보전투와 함께 적들에게는 철추를 내리고 우리 인민들에게는 또다시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었다.

1940년 8월 돈화현 소할바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보고에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조선혁명의 중추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면서 그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육성하는 것과 함께 우리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이 전략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할데 대한 새로운 투쟁방침이 제시되였다.

소할바령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소조들은 국내와 동만의 넓은 지역에서 습격전투를 과감히 벌려 적의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 군수수송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후방을 크게 교란시켰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당면한 전투활동뿐 아니라 최후결전의 작전계획완성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군사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뿐만아니라 《김일성대》, 《조국해방단》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전민항쟁무장조직들이 결성되어 활동하였으며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속에서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

글 김일봉

보금자리

(전호에서 계속)

어떤 날은 추수대가 새하얗게 달라붙어 곡식을 베고있는 포전을 사이에 두고 적위대와 자위단사이에 맹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줌의 낱알을 위해 야밤삼경에도 쉬지 못하고 결사적인 추수전을 벌리는 왕청인민들의 모습은 우리를 무척 감동시켰었다.

비록 간고하기는 하지만 근거지에서 매사가 우리의 뜻대로 잘되어가는것을 보고 나는 그때 매우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소왕청을 떠났었다.

나는 유격근거지로 되돌아가면서 자기앞에 두가지의 큰 과제를 내세웠다. 하나는 유격대오를 대폭 늘이자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활동무대를 두만강연안으로 옮기게 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한데 묶어세우기 위한 통일전선사업과 중국인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리자는것이였다.

마로인은 우리를 전각루까지 안내해주고 라자구로 돌아갔다.

마로인을 대신하여 우리를 안내한 성미가 걸걸한 반일회원은 왕청유격대의 소부대들이 그동안 요영구와 사수평에서 일본침략군 《토벌대》를 답새긴데 대하여 옛말처럼 구수하게 이야기해주었다.

우리는 다음날 반일인민유격대라고 쓴 기발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왕청1구의 소재지인 요영구유격구역에 들어섰다.

후날 내결에서 전령병으로 복무하다가 전사한 최금산의 숙모 홍영화가 스무나문명 되는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신작로에 뛰어나와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열광적으로 마중해주었다. 그 녀자는 왕청1구당위원회산하에서 부녀사업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유격대와 반일부대에 대한 후원을 잘하여 군민의 사랑을 받고있었다.

그날 요영구인민들은 우리에게 기장떡도 해주고 메밀국수도 올려주었다. 저녁에는 아동단원들을 내세워 공연도 해주었다.

《김일성부대에 대한 소문이 벌써 몇달전부터 돌았습니다. 남만에 나갔다가 북만에 들어와서 돈화와 액목을 찢다는 소식도 다 들었습니다. 우리 고장사람들이 김대장부대를 눈이 까매서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더 든든해 집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 군대와 인민이 한데 어울려 오락회를 하고있을 때 내결에서 그 광경을 눈물겹게 바라보고있던 왕청1구당위원회 조직부장 리웅걸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와 함께 오락장을 떠나 구당위원회 사무실에서 유격구사업을 장시간 논의하였다. 논의의 초점으로 된것은 전각루와 같은 고장들에서 우리의 당조직과 혁명조직들을 어떤 방법으로 확대해나가겠는가 하는것과 유격구의 전체 인민을 어떻게 무장시키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우리의 담화가 유격구보위에 대한 이야기로 한창 무르익어가고있을 때 적구에서 통신원 한사람이 비밀쪽지를 가지고 요영구로 찾아왔다.

그 쪽지에는 래일 대흥구에 주둔하고있는 일본수비대놈들이 유격구를 《토벌》하게 될것이라는 내용의 짤막한 글이 적혀있었다.

《지난해 설달에 얻어맞은 분풀이를 하려고 올테지요. 저 악귀같은 놈들이 글썽 수천리길을 걸어온 귀빈도 몰라봅니다그려. 우린 사실 김대장부대를 여기서 며칠간 폭 쉬다 가게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일이 공교롭게 됐습니다.》 리웅걸은 마치 일본군이 요영구를 《토벌》하러 오게 된 책임이 자기자신에게 있기라도 한것처럼 송구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공교롭게 되었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몇달 동안 싸움을 하지 못해서 모두들 손이 근질거리던 판인데 마침 잘됐습니다. 대감자와 전각루, 덕원리, 삼한리참변에서 우리 인민이 흘린 피값을 받아낼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나서 리광에게 부대를 데리고 요영구에 속히 와달라는 연락을 보냈다.

리웅걸도 등이 달아서 마라초를 연방 태우다가 오락회장에 있는 적위대장을 불러들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표정을 살펴보니 총동원령이라도 당장 내릴듯한 기상이였다.

나는 리웅걸의 팔소매를 잡고 웃으면서 그를 걸상에 끌어다앉히였다.

《웅걸동무, 적위대원들에게 <토벌대>가 온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그러는게 아닙니까? 오락회가 절정에 이른것같은데 흥이 다 깨질수 있으니 그냥 놀게 놔두시오. 그대신 한시간후에는 적위대원들을 모두 집에 보내여 새벽까지 폭 재웁시다. 나도 오늘밤에는 우리 동무들을

일찍 재우겠습니다.》

《토벌대》의 기습계획을 알리는 긴급통보 앞에서 우리가 인차 림전태세를 취하지 않고 군민의 오락회가 계속되도록 태연스럽게 방임해둔것은 사실 군사실천상의 견지에서 볼 때 상식에 어그러지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구당위원회에서 조직부장직과 함께 군사문제까지 책임지고 있는 리웅걸이 초조해하며 불안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본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하지만 나는 대원들이 오락회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갈 때까지도 그들에게 적구에서 온 통보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러로에 지친 대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전투정황이 일단 제시되고 명령이 하달되면 어떤 철심장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오늘밤만은 제발 수면시간을 침해하지 말자. 이 겨울에 그들이 잠인들 제대로 잤는가.)

이것이 그날 밤 나를 사로잡은 생각이였다. 유격대를 령솔하는 지휘관으로서 삼가해야 할 그런 인정이라고나 할가. 어쨌든 밤 11시까지는 모든 대원들이 숙소에 돌아가 잠에 푹아 떨어졌다.

우리의 길안내를 담당했던 전각루의 반일회원과 적구에서 온 연락원은 나의 처사가 미라해서인지 자정이 지난 다음에도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리웅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치락거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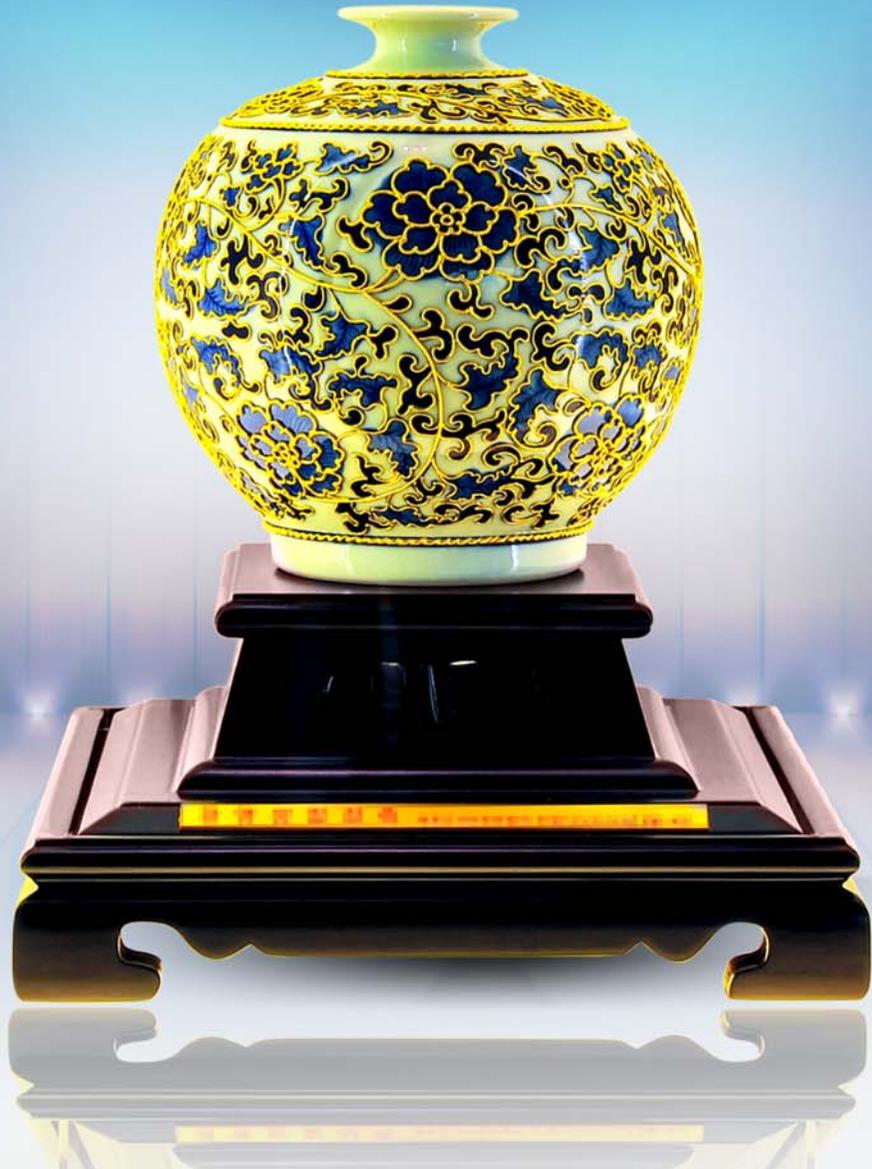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

자기꽃병

자기꽃병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2014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삼가 드린 선물이다.

웃직경 6.5cm, 가운데직경 20cm, 밑직경 11cm, 높이 20cm인 선물은 아구리가 좁은 사과모양의 도자기꽃병이다. 선물의 겉면에는 푸른색바탕에 레두리를 금띠로 장식한 모란꽃과 잎사귀, 넝쿨무늬들이 형성되어있고 목부분과 밑굽부분에 금도금을 한 띠가 둘러져있다.

꽃병의 모양이 사과처럼 둥근것은 평화로움을 의미하며 꽃병에 새긴 모란꽃은 부강번영을 상징하고있다.



수필

웃음에 대한 생각

얼마전 조국을 방문하였던 재일동포들과 새로 일떠선 화성거리, 림흥거리를 돌아볼 때였다.

총련 조선신보사의 너기자가 《가만!》하며 사진기샤타를 련방 누르는것이였다. 일행의 초점이 모두 너기자에게로 쏠렸다. 그러자 그는 밝게 웃는 저 인민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고싶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모습이 나에게 안겨준 여운은 컸다.

웃음.

오늘날 온 나라 곳곳에서 새 희망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를 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수도의 새 거리들과 새 농촌살림집들에서 아낌없이 베풀어지는 당과 정부의 시책들을 받아안으며 생활의 진미를 느끼고 행복에 웃으며 신심을 가다듬는 우리 인민들이다.

당의 지방발전정책의 첫 실체들에 접한 인민의 감격과 환희는 또 어떠한가.

한생 논벌에서 살면서도 도시를 부러워하였는데 머지않아 도시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꿈만 같다고 한 금야군의 한 농장원, 퇴근시간이면 집으로 돌아가던 종업원들이 이제는 작업장을 떠나기 아쉬워 스스로 설비들을 닦으며 희열에

넘쳐있다고 한 성천군식료공장의 한 종업원...

복이 넘치는 새로운 앞날을 휘황히 열어주는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격정의 목소리, 고마움의 목소리는 밝은 웃음소리에 실리어 이 땅 어디서나 울려오고있다.

우리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단지 즐거움의 대명사나 생활의 진미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제도의 상징으로, 국력평가의 절대적기준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웃음을 꽃피우시려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헌신의 자욱자욱은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오늘도 귀전에 들려온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심다해 받들어나가는 인민들의 기대에 비하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는 너무도 적다고 하시며 국력이 강해지고 자신심이 커질수록 우리 인민이 걸어온 시련에 찬 려정을 한시도 잊지 말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하며 가까운 앞날에 인민들과 약속한 부유하고 문명한 시대를 기어 이 펼쳐놓아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며 인민의 웃음을 강국의 징표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밑에 이 나라 그 어디에서나 문명의 터전, 만복의 보금자리들은 끝없이 솟구쳐오르고있으며 격동하는 이 시대를 상징하듯 나라의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그 웃음소리에는 담겨져 있다.

값진 재부들이 끝없이 솟아나는 오늘도 좋지만 우리 당이 구상하는 희망찬 래일, 인민 위한 고귀한 창조물들이 조국강산에 가득찰 우리의 앞날은 또 얼마나 좋을것인가를 그려보는 크나큰 기대와 벅차오르는 신심과 열정이.

그렇다.

이 땅에서 웃음은 단순히 행복의 표현만이 아니다.

인민의 웃음소리는 인민의 행복을 위함에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인민의 부유하고 문명한 생활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드리는 고마움의 찬가이며 이 나라의 공민된 한없는 자긍심의 분출인것이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완전히 실현될 부흥강국의 찬연한 래일, 새 문명과 새 생활이 꽃피날 이 땅의 아름다운 미래상을 그려주며 인민의 웃음소리는 날로 높아갈것이다.

글 임향심

진달래손전화기공장

조국인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손전화기들중에는 《진달래》마크를 단 손전화기도 있다. 이 손전화기들은 진달래손전화기공장에서 생산되고있다.

2018년 3월에 창립된 공장의 연건축면적은 6 087㎡이다.

공장에는 손전화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력량과 생산공정이 그쯘히 마련되어있다. 과학적인 생산관리, 품질관리체계가 정연하게 수립되어있는 공장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원칙에서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지능형 및 기능형손전화기부분품들을 흐름식으로 생산조립하고있으며 그 정밀도와 생산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액정현시기손접촉판접합공정의 무진급수는 10급이며 생산현장들의 공기청결도는 국제적수준에 부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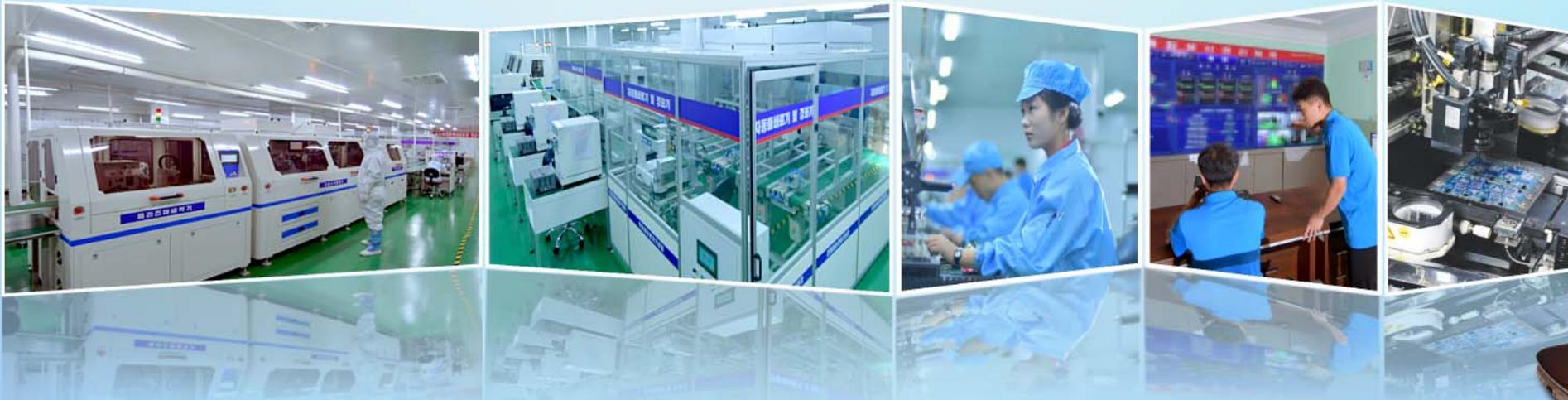
뿐만아니라 제품들은 선진적인 측정설비들에 의해 그 품질이 담보되고있다.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첨단설비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액정현시관검사기, 자동폴바르기 및 경화기, 손전화기진동 및 충격시험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였다.

국내에서 자체로 설계하고 제작한 손전화기 《진달래》3생산으로 첫걸음을 뗀 공장은 오늘 제품의 종류와 질을 부단히 개선하며 수직종의 지능형, 기능형손전화기들을 생산하고있다.

《진달래》손전화기에 대한 인기영역은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고있다.

글 임향심, 사진 김성철



평양건설기계공장에서

기술개건사업에 힘을 넣어

평양건설기계공장이 승강기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을 생산장성의 열쇠로 틀어쥐고 기술혁신사업을 완강히 추진하고있다.

공장에서는 능률적인 가공방법과 자재절약방안들을 받아들이는 한편 기술혁신, 창의고안현상응모를 실효성있게 조직하여 기술자, 기능공들의 지혜를 최대한 계발시키고있다. 그리고 현상응모에서 평가된 기술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따라세우고있다.

주물직장에서는 중주과유도로의 조종장치를 새롭게 개조하고 이동식건조로를 비롯한 능률높은 설비들을 제작하는 등 생산공정완비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외에도 도가니로의 수명을 1.5배, 한 보수주기동안의 용해회수를 종전보다 10회 늘일수 있는 기술적문제를 해결하여 생산성을 한계단 끌어올리였다.

제관직장에서는 조립지구를 새롭게 제작하여 승강기함바다조립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수 있게 하였으며 만능절단기를 만들어 제관품생산과제를 지난 시기보다 훨씬 앞당겨 수행하고있다.

가공직장에서는 CNC선반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가공시간을 대폭 늘일수 있게 하였을뿐 아니라 승강기문자동장치의 이발피대가공을 보다 편리하게 할수 있는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가공속도를 6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설비들의 기술적성능을 보다 높여 제품의 가공시간과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정밀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기술발전과 과장 리선을 비롯한 공장의 기술자들은 지혜를 합쳐 승강기 일체식조종장치의 성능을 개선하였으며 주물공정모의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주체철을 리용한 주물생산공정을 완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공장에서는 능률높은 기계설비들을 연구제작하여 생산능력확장과 공정완비에서 진전을 이룩하였다.

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공장에서는 630kg, 800kg, 1 000kg, 2 000kg 승강기 등 다양한 형태의 승강기를 생산하고있다.



림동훈지배인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공장 종업원들의 기세는 매우 높다. 생산자대중의 창의창발성이 적극 발휘되는 속에 공장의 생산능력은 부단히 높아지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글 김지성, 사진 김성철





지방증흥과 더불어 변모되는 고향

- 평안북도 구장군을 찾아서 -

미국에서 살고있는 김태희동포는 구장땅에 자별한 인연을 가지고있다. 고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안북도 구장군을 어김없이 찾아 이곳에서 살고있는 조카 김지곤을 비롯한 친척들을 만나보군 한다는 동포이다. 그에게 구장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전 이곳을 찾았다. 맑은 청천강을 끼고 산뜻하게 펼쳐진 군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였다. 군의 초입구에 꾸려진 체육공원과 읍지구를 향하여 시원하게 뻗은 포장도로, 그를 따라 구색이 맞게 들어앉은 여러 봉사시설들과 다층 살림집들, 학생들의 글소리, 노래소리 랑랑한 학교들...

우리를 안내한 군의 한 일군은 군을 돌아보기에 앞서 적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구장에는 지하명승을 자랑하는 룡문대굴과 백령대굴, 경제발전과 군주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구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와 구장세멘트공장 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력사유적도 한둘이 아니라며 손을 꼽기까지 하였다. 특히 조선로동당의 지방발전정책의 첫째 실체로 몇쟁이공장들이 일떠서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군과 함께 구장군식료공장부터 찾았다. 현대적인 설비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공장에서는 《 룡문대굴 》 상표를 단 과자, 사랑, 빵을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들이 생산되고있었다.

2025년 1월 24일 평안북도 구장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서 군내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다.

지배인 장영철은 구장군에 지하명승인 룡문대굴이 생겨나기까지는 유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군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지방변혁의 실체들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일떠섰다고 하였다.

공장의 제품들과 종업원들의 모습을 사진기 렌즈에 담은 우리는 식료공장과 이웃하고있는 구장군일용품공장에도 둘러보았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물고기풍년은 구장양어장

군내 주민들이 선호하는 인기제품, 명상품들을 수요에 맞게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었다. 물비누와 여러가지 빨래비누, 각종 수지제품들, 옷장 등의 상표들에는 자기 고장의 특색이 살아나게 《백령대굴》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지하명승 룡문대굴과 백령대굴로 소문났던 구장군이 누구나 즐겨 찾는 제품들의 생산지로 되게 하기 위해 종업원들은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었다.

책임기사 유인근은 원료보장과 기능공양성에 깊은 관심을 돌려 우리 당의 지방발전정책이 인민들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닿을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 결의를 다짐하였다.

그만이 아니었다.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질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나오는 광경을 TV에서 보며 나도 언제면 저렇듯 훌륭한 일터에서 일해 볼수 있을가고 부러워했는데 오늘은 기술전습을 마치고 현대적인 생산공정이 그뿐히 갖추어진 새 일터에 섰다고 진정을 토로하는 한 로동자의 얼굴에도 어려있었다.

우리는 읍거리의 한 상점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았다.

갖가지 상품들을 사들고 나오던 리옥금녀성은 지난해에는 새로 일떠선 농촌살림집에 보금 자리를 편 소식을 군대에 나간 아들에게 보냈는데 오늘은 멋쟁이공장앞에서 보란듯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게 되었다며 나라의 은덕으로 나날이 유족해지는 구장군의



먼거리의료봉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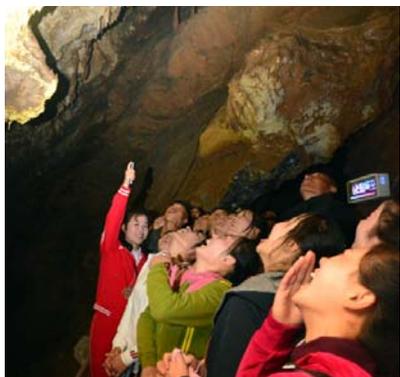
전변을 온 나라에 자랑하고싶다고 하였다.

답사와 관광 등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 줄만한 이렇다할 특산물이 없었는데 오늘은 지방발전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로 되고 내놓고 자랑할 부흥의 재부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민들 누구나 좋아하고있었다.

나라의 관심과 혜택속에 청천강반의 구장군이 인민의 웃음,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는 고장으로 더더욱 변모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며, 김태희동포가 조국을 방문하면 얼마나 기뻐 할가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다음취재길을 이어갔다.

글 변진혁
사진 김성철, 리영철

지하명승 룡문대굴을 찾은 근로자들



음이온-먼적외선-생물공진건강제품

전기석 안마방신

순환기질병, 고혈압, 저혈압, 각종 관절염,
머리아픔, 불면증, 경추증, 허리아픔,
신경통, 유선증, 변비증에 **특효!**



평양애육원 밝게 활짝 웃어라, 활짝 피어라.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대동강기슭에 아담하게 일떠선 평양애육원에서 아이들의 랑랑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있다.

대동강의 푸른 물이 유정하게 흐르고 주위에는 무성한 나무숲이 우거진 곳에 자리잡은 보금자리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원아들의 모습을 지면에 담기 위해 우리는 평양애육원을 찾았다.

정문에 들어서니 맑고 청창한 아이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원아들을 만나보고싶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부추기였다.

우리를 맞이한 애육원의 일군인 장영희를 따라 제일 먼저 들린 곳은 높은2반 교양실이었다. 그곳에서는 《무지개 동산》이라는 교재에 따라 한창 공부를 하고있었는데 교양원의 물음에 또랑또랑 대답하는

원아들의 모습이며 동영상 편집물과 여러가지 직관물들을 적극 활용해가며 원리적인 교양을 주는 교양원의 모습은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기발》이라는 제목으로 영어공부가 진행되고있는 낮은1반 교양실을 찾았다. 류창한 외국어발음으로 우리의 국기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교양원의 물음에 썩씩하게 대답하는 원아들의 모습은 흐뭇함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낮은반시기부터 우리 말과 함께 외국어조기교육을 동시에 진행하여 원아들의 지적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고있다는 리평옥 담당교양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원아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의 일면을 느낄수 있었다.

이어 우리는 애육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다.

다종다양한 동식물표본들과 각종 지능형놀이감들이 있는 자연관찰실과 지능놀이실들은 자연에 대한 생동한 표상과 함께 지능개발에 좋은 조건을 지어주는 장소인것으로 하여 원아들이 너도나도 찾고있었다.

애육원의 원아들은 자기들의 소질에 따르는 재능도 활짝 꽃피우고있었다. 우리가 미술소조실을 찾으니 그림그리기에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있는 리행운, 최평해어린이들이 그린 연필화가 지난해에 진행된

소년단시절의 첫걸음

- 금성제1중학교 소년단지도원 리미아와 본사기자와의 대담 -



제 10차 전국소묘축전에서 당선된 것을 비롯하여 원아들속에서는 적지 않은 재간둥이들이 배출된 자랑이 있었다.

미끄럼대와 룡구대, 아동자전거를 비롯한 각종 유희기구들과 놀이감들이 있는 실내놀이장과 야외놀이장 역시 원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특히 원아들은 과외교양시간에 이곳에서 서로의 승벽심을 키워주는 말타기와 공차기 등 여러가지 놀이들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있었으며 야외에서는 전기식소형유희렬차에 몸을 싣고 좋아라 웃고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원아들의 동심에 맞게 꾸려진 실내물놀이장과 야외물놀이장도 그러하였지만 고기와 수산물을 비롯한 갖가지 남새와 과일들, 꿀과 당과류 등이 그득히 쌓여있는 팽동창고와 남새저장고 등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을 위한 당과 정부의 한량없는 사랑을 다시금 느낄수 있었다.

그렇수록 궁궐같이 꾸려진 희한한 집에서 한점 구김살 없이 밝고 명랑하게 자라는 원아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이곳 일군인 장영희가 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예로부터 고아라는 말은 설움과 불행의 대명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원아들은 부모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로 크나큰 행복을 누리고있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는 우리들의 귀전에 이곳 원아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그것은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였다.

아직은 이 노래가사의 의미를 다는 알수 없을 원아들, 그들은 철부지들이지만 앞으로 크면 다 알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글 김대철
사진 김성철, 리영철



기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추억하게 되는 소년단시절, 붉은넥타이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소년단시절에 첫걸음을 어떻게 내짚는가에 따라 인생이 크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소년단지도원: 그렇습니다. 사람이 첫걸음을 잘 내짚어야 한생 곧바른 길을 갈수 있는것처럼 소년단시절에 아름다운 꿈과 포부를 싹틔우고 올바른 세계관의 기초를 다져야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9살이 되면 누구나 붉은넥타이를 매고 소년단 조직에 들어서며 이때부터 사회정치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지식과 함께 성장에 필요한것을 하나하나 배우며 참다운 인간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게 됩니다.

기자: 지금 우리 나라에 와보지 못했거나 적대세력들의 악선전에 물젖은 사람들은 소년단 조직생활에 대하여 인간의 개성을 억제하고 자유를 구속한다

고 물리해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소년단지도원: 그것은 너무도 우리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소년단생활은 아직은 모르는것이 많고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파악이 부족한 소년들에게 현실과 접촉할수 있는 기회를 주며 개성의 자유로운 형성발전에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우선 소년단조직은 모든 소년단원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밑에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높은 실력을 소유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공부를 잘하는 소년단원에게 그렇지 못한 동무를 도와줄데 대한 분공을 주어 그의 방조속에 뒤떨어진 소년단원의 실력을 높여주고있습니다.

이것은 소년단원들의 실력을 다같이 높여주고 공고히 하는 과정으로 될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동무들사이에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우애심을 두터이 하는 귀중한 생활 체험을 쌓게 해줍니다.

소년단시절에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데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게 되면 점차 나이보다 생각이 먼저 자라 가정과 친척, 이웃들의 화목과 단합을 실현하는데도 큰 작용을 합니다.

소년단조직은 모든 소년단원들이 자기의 취미에 맞는 소조를 선택하여 재능을 련마하도록 조건을 보장해주고있습니다.

학교들마다에는 학생들의 취미

에 맞는 각종 소조들이 있으며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도 있어 누구나 무료로 과외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에서 진행되는 여러가지 모임이나 다채로운 행사, 다양한 활동들에 참가하여 발표력을 키웁니다.

이런 계기들은 소년단원들에게 자기 조국을 더 잘 알게 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려는 자각을 심어주게 되며 재능을 꽃피워주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과정으로 됩니다.

하여 우리 학교의 졸업생들중에서 많은 과학자, 발명가, 예술인, 체육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기자: 소년단지도원들의 어깨가 매우 무거우리라 봅니다.

소년단지도원: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전국학교소년단지도원대강습도 진행되었지만 나라에서는 우리 소년단지도원들을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첫스승, 정치적보호자로, 교원우의 교원으로 내세워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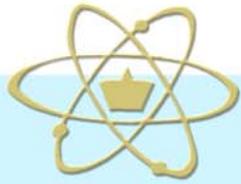
나는 이 고귀한 칭호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소년단원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노력하도록 적극 이끌어주겠습니다.

하여 소년단원들의 정치적보호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고맙습니다.

* * *

보통교육부문에서 이름난 학교



수도 평양의 위성도시 평성시에는 김정숙제1중학교가 있다.

학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평안남도녀자기술학원으로 창설된 후 인차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존함을 모시고 후세에 길이 전하려는 도내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에 의해 김정숙녀자기술학원으로 개칭되었다. 1987년 10월에 학원은 김정숙제1중학교로 불리우게 되었다.

학교는 그후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오늘 학교에는 실험실습실들과 동식물 표본실, 체육관 등이 현대적으로 갖추어져있다.

수십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과 10월8일 모범 교수자들을 진영으로 하고있는 학교는 보통교육사업에서 전국적으로도 앞선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지난 시기 여러명의 학생들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경연들에 참가하여 우승의 영예를 지녔으며 오늘도 학교의 학생들은 전국적인 학과경연들과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들에서 매년 순위권에 입선하고있다. 해마다 수십명의 7.15최우등상수상자들이 배출되고있으며 상급학교 입학률도 계속 높아지고있다.

올해에만도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 높은 성적으로 입학하였다.

학교가 어제나 오늘이나 학생들의 높은 실력을 변함없이 유지해나가고있는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2년전 학교의 교원진영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교수경험이 오랜 교원들에 비해 신입교원들의 비중이 훨씬 많아진 상태에서 과연 교수의 질을 따라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학교앞에 나섰다.

교장 김혁철, 교수지도교원 김영애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은 신입교원들의 교수능력을 자질이 높은 교원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것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밀었다.

학교에서는 신입교원들이 응당한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3~6달동안 수업에 참가시키지 않고 능력있는 교원들과 함께 교과서와 참고도서의 문제풀이를 하고 교수설계방법도 터득하도록 하였다. 어떤 때에는 신입교원을 위한 개별수업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수경연을 중시하고 여기에 힘을 넣었다. 여러 교수경연에 신입교원들을 적극 출연시키고 그 준비에 많은 품을 넣도록 하였다. 집단의 방조속에 교수방법을 완성시켜주면서 새 교수방법도 창조도입하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짧은 기간에 이들의 교수능력은 한단계 발전하였다.

학교에서는 또한 학생들을 실천형의 인재들로 키울수 있는 계발식, 탐구식, 토론식교수방법들을 보여주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그 과정에 새로운 교수방법도 창안되었다.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의 주의집중력이 가장

좋은 15분동안에 새 지식을 집약하여 설명해주고 나머지 30분 동안에 학생들이 배운 지식에 대한 토론, 문답, 론쟁을 벌려 그 시간에 배운것은 그 시간에 소화하도록 하는 새 교수방법의 도입으로 하여 학생들의 실력은 더욱 높아졌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방과후에는 과목 교실운동을 정상화하고 여기에 취미, 소질이 다르고 학과목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찾아와 수업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작용을 하고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실천실기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방학기간에 지난 시기처럼 문제풀이과제가 아니라 창조적과제를 주어 모두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있다.

학생들이 과학적원리를 리용하여 각종 모형들을 비롯한

한가지이상의 창작품들을 내놓게 하는 과정은 그들의 착상력, 사고력,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로 되고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평가사업도 잘하고있다. 매주 월요일이면 최우등생학과경연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국기를 띄우게 하고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해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휘날리게 할 자신심과 결심을 가지게 하고 이여의 학생들에게는 분발심을 키워주는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

교장 김혁철은 《시대는 계속 발전한다. 그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수단과 환경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노력도 부단히 강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글 변진혁, 사진 김성철



핵자기공진기술을 리용하여

사리원지질대학에서 선진수준의 물리탐사기를 개발하였다.

핵자기공진지하수탐사기로 불리우는 이 탐사기는 땅속에 강한 에너지를 짧은 시간동안에 내보내고 려기된 수소원자핵의 방출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지하수를 찾아내는 탐사설비이다.

자료에 의하면 핵자기공진에 의한 탐사기술은 세계적으로 난도높은 기술로 인정되고있다. 하여 이 탐사기는 몇개 나라에

서밖에 만들지 못하고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탐사설비를 개발할 목표를 세운 대학에서는 연구조를 못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탐사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구성부분들에 대한 과학기술 자료가 부족하여 미지의 초행길을 헤쳐야 했지만 지구자원학부 학부장 박사 부교수 옥진성, 교원들인 김혁철, 소현성을 비롯한 연구조성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였다. 그

과정에 연구조는 효율적인 과전압 보호회로를 설계제작하고 공업장애억제를 위한 려파단들의 특성지표들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현장조건에 따르는 려파방식과 증폭도를 선택조종할수 있게 하였다.

한편 연구조는 수신단의 증폭도와 주파수특성이 환경온도에 따라 변한다는것과 핵자기공진신호의 시간에 따르는 감쇠특성을 새롭게 밝혀낸데 토대하여 해당 회로를 합리적

으로 설계하여 측정정확도를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nV급의 신호를 수감하는 수신단 제작을 끝낸 연구조는 kW급의 대출력신호를 내보내는 송전단 설계제작에 련이어 달라붙었다.

용량이 큰 콘덴샤의 충전 및 방전을 위한 여단이식전원단에 합리적인 동작방식을 받아들여 전력변환효율을 높인 연구조는 여기에 오동작방지와 과열보호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대출력 송전의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수개월간의 노력끝에 연구조가 제작한 탐사기는 첫

시험에서 실패하였다. 수신신호는 nV급으로서 매우 미세한데 그보다 세기가 수천배나 큰 장애신호의 영향으로 핵자기공진신호를 포착할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연구조는 실패에 낙심하지 않았다. 시험과정에 새로운 착상을 얻은 연구조는 그에 토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결과 공업장애를 제거할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이 연구완성되었고 탐사기 개발은 보다 빠른 속도로 진척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연구조는 수신감도가 높은 수신단을

그대로 리용하면서 주조종단에 여러 기능을 추가하여 탐사능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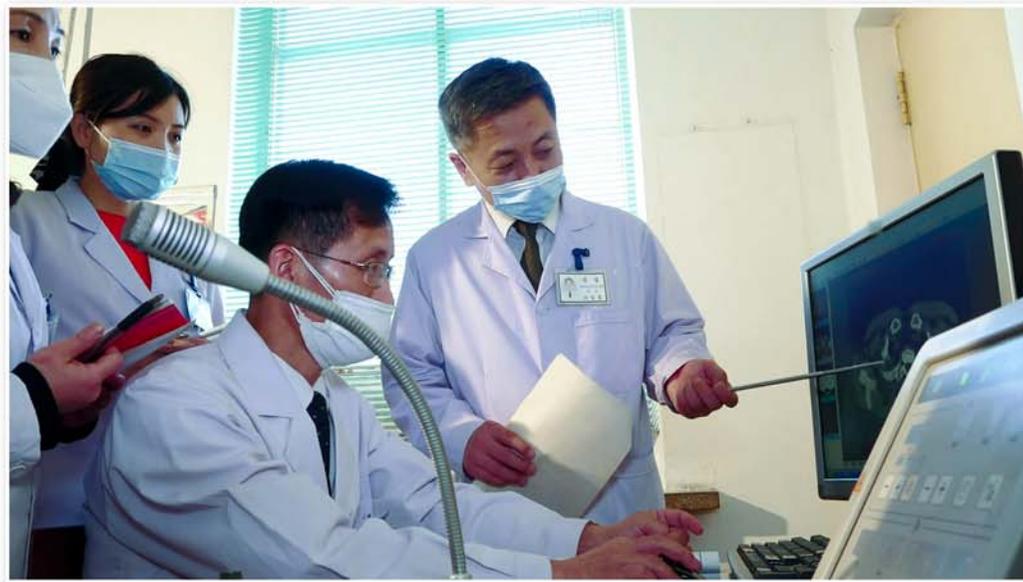
20여개 단위의 지하수탐사와 지반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 정확성이 세계적수준이라는 것이 검증된 핵자기공진지하수탐사기는 제37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새 기술제품개발상을 수여받았다.

글 김지성
사진 김영호



불치의 병에 도전한 사람들

의학연구원 중앙연구소
암예방치료연구실에서



리일훈실장(오른쪽에서부터 첫번째)을 비롯한 이곳 연구집단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암의 예방과 치료는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관심사로서 많은 의학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의학연구원 중앙연구소 암 예방 치료 연구 집단이 암완전개발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0년 2월 암예방치료 연구실이 조직되어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는 암완전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할 당시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연구사업은 의학과학의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사업으로서 결코 포부만으로는 쉽게 실현

할수 없는 신념의 길이였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아직 세계적으로 암완전은 미개척 분야나 같은데 우리가 할수 있는가, 암치료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부작용이 좀 있어도 화학요법밖에 없다며 도리머리를 짓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리일훈실장을 비롯한

연구집단은 수십차에 걸치는 실패에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 인민들의 체질과 신체적특성에 맞는 암완전을 무조건 개발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마침내 이들은 2004년에 새로운 암완전(암재발, 전이 예방약)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동물실험과 임상검토를 통하여 암완전이 암수술후에 발생하는 암전이를 효과적으로 예방치료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오랜 기간의 임상검토 및 치료 과정에 이들은 간암, 위암, 폐암 등 각종 암수술후 환자들에게 암완전치료를 배합할 때 다른 치료방법들에 비해 10년

생존률이 평균 33~49.4% 더 높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이곳 연구집단이 개발한 암완전은 부작용이 거의나 없으면서 치료효능이 높아 수술후 암이 전이되었던 환자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 주었다.

형제산구역에 살고있는 리성금녀성(50살)이 2006년 유선암수술후 6차에 걸쳐 수입산 항암제로 치료를 받았지만 2년후에 다시 전이되어 연구집단이 개발한 암완전으로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있다. 이 녀성을 비롯한 암완전으로 치료를 받고 효과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이곳 연구집단에 감사의 인사

를 보내오고있다.

암완전은 10여년전에 진행된 유럽의 어느한 국제토론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 완전으로 콩팥암치료에서 좋은 결과를 본 외국의 한 문필가가 우리 나라의 해당 기관에 고마움의 편지를 보내 온것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에서도 호평을 받고있다.

암완전은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으며 2차에 걸쳐 첨단 기술제품으로 등록되었다.

오늘도 이곳 연구집단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글 김대철, 사진 김영호



장기수풀이 (30)

장기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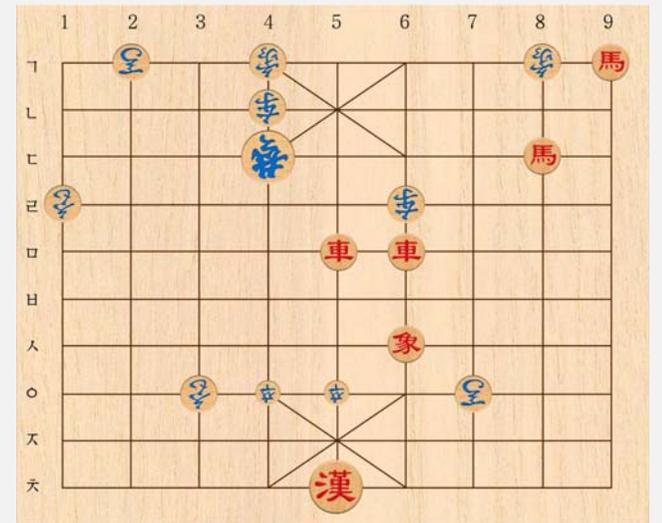
이른 차는 외나무다리건느기

시작초기부터 차가 정확한 타산이 없이 혼자서 중앙계선에 나가거나 상대방의 중심에 들어가면 편안치 못하다는 뜻이다.

이 말은 진꾸리기도 하지 않고 속전속결을 생각하며 차가 린접이 없이 첫시작부터 뛰어나가면 항상 상대방의 경계속에 들기때문에 순간순간 위험이 뒤따르고 자칫하면 포위 또는 유인수에 걸려 잡혀죽을수 있다는 내용을 의미하고있다.

장기수풀이 (29)에 대한 답

ㄷ7상5, ㄴ4사ㄴ5, ㄱ5상ㄴ2, ㄴ5사ㄴ4, ㄷ3상5, ㄴ6사ㄴ5, ㄴ5포5, ㄴ5사ㄴ6, ㄴ2상ㄴ5, ㄴ4사ㄴ5, ㄱ5상ㄴ3,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무취주먹의 사나이



지난 3월 태권도전당에서는 국제부녀절 115돐을 맞으며 전국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가 진행되는데 이어 녀성들을 축하하여 이름난 무도인들의 태권도시범출연이 있었다.

격파, 전회차기, 호신술 등 아슬아슬하면서도 강한 위력을 보여주는 박력있고 세련된 기술동작들은 관중을 완전히 매혹시켰다.

특히 시범출연의 마감에 진행된 손종합위력은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량쪽 앞주먹으로 20장, 등주먹으로 10장, 손바닥으로 10장, 손칼 등으로 10장, 팔굽으로 15장, 손칼로 10장 등의 기와를 깨버리는 손종합위력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이 손종합위력의 주인공은 조선태권도위원회 사현 김명준이다.

그는 2023년 8월 까자흐스탄에서 진행된 제22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시범출연에서도 손종합위력으로 100장에 가까운 화강석을 깨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고도의 집중력과 함께 강한 육체적힘, 높은 기술을 동반하는 이 위력은 누구나 쉽게 해낼수 없는것이다.

김명준사범은 뒤늦게 태권도를 시작하였다.

어릴 때부터 날렵하고 감각이 좋아 송구를 하던 그는 16살이 되어서야 태권도로 방향 전환하였다.

1993년부터 조선태권도위원회 선수단의 유능한 사범에게서 태권도를 배운 그는 1995년부터 시범조에 망라되었다.

그는 틀종목은 물론 9명이 쌓은 탑을 날아넘어 송관을 격파하는 특기종목에 출연하여 《날아다니는 사나이》로 불리웠다.

그후 그는 시범출연의 마감을 장식하곤 하는 손종합위력에 마음이 쏠렸다. 그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손힘을 키웠다. 매일 타격훈련을 하다보니 손이 부어오르고 내려치는 각도를 간혹 잘못 잡아 손에서 피가 나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손종합위력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10여년 간의 선수생활을



마치고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한 그는 2009년 조선태권도위원회 사범단에서 사범생활의 첫 자욱을 내디딜 때에도 자기의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손에 외상을 입기도 했고 때로는 심한 골절로 하여 동작수행에 지장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듯 손종합위력종목의 세부를 손색없이 원만히 수행한다는것은 굳은 각오와 결심이 없이는, 강의한 투지가 없이는 해낼수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태권도의 위력을 보여주는데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종목을 맡아 수행한다는 긍지를 안고 그는 훈련도 실전과 같이 하였고 완벽한 동작수행을 위해 온 심혼을 기울 이었다.

자기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는것과 함께 종전보다 타격부위와 타격기재수를 더 늘였다.

2023년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그는 심한 부상으로 하여 고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개막식에서의 시범을 앞둔 순간까지도 동동은 계속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잠재력과 의지를 총발동하여 무대에 나섰다.

힘있고 기백있는 등주먹패리로 시작된 그의 놀라운 위력은 관중들뿐 아니라 참가자들 모두의 시선을 모았다. 촬영기들은 일시에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무취주먹에 의해 순간에 화강석들이 박산날 때면 여기저기서 잘한다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시범출연이 끝난 후 세계의 많은 태권도관계자들과 애호가들은 태권도의 위력에 대하여 경탄해마지 않았으며 조선의 태권도를 더 열심히 배우려는 자기들의 소망을 피력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100여차의 해외 및 국내시범들에서 손종합위력을 맡아 수행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태권도를 하면 할수록 조선사람이라는 가슴부드함에 절로 마음이 즐거워진다. 더 기세차게, 더 힘있게 민족의 기상을 떨쳐가겠다.》

국내체육명수칭호를 받은 그는 국제태권도련맹 경기조직위원회 위원, 국제사범이면서도 A급국제심판원이기도 하다.

글 엄향심, 사진 김영호



무용을 사랑하는 장애인부부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들도 자기의 꿈과 희망을 꽃피우며 한점의 그늘없이 생활하고 있다.

그들속에는 조국인민들은 물론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살고있는 동포들과 외국인들속에 널리 알려진 주수양과

류진혁도 있다.

지난 시기 그들은 평양장애인 교류단에 망라되어 중국, 영국,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예술공연 무대우에 다채로운 무용종목들을 펼쳐보이었다.

특히 세계명작동화를 각색한 무용 《백설공주와 일곱명의

난쟁이》에서 수양이는 여 주인공인 공주역을, 진혁이는 남주인공역인 왕자역을 수행하였다.

그들의 공연을 본 영국의 한 인사는 청력장애자들이 아름다운 선율에 맞추어 황홀한 룰동을 펼쳐보인다는것은 상상조차



류진혁과 주수양은 세계명작동화를 각색한 무용 《백설공주와 일곱명의 난쟁이》를 비롯한 여러 무용작품들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하였다.

할수 없는 일이다,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박자와 룰동 개념을 심어주었는지 나로서는 전혀 가늠이 가지 않는다, 그들은 호흡이 너무나 잘 맞았다, 청력장애자들이라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감탄하였다.

그것은 장애인들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주는 우리 조국에 대한 찬탄이라고 할수 있다.

사실 수양이와 진혁이는 《아빠》, 《엄마》라는 말을 떼기 시작하던 시기에 뜻밖의 일로 청력을 상실하였다.

음악소리가 울리면 당실당실 춤을 추던 그들의 귀가로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 그때부터 춤을 출수가 없었다. 그러던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흘러들었다. 12살, 13살되던 해 뜻밖에도 수양이와 진혁이는 조선장애인 예술협회 예술소조원으로 선발되었다.

그들은 우수한 무용지도원에게서 무용기초기술동작을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비록 그들의 귀에는 음악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 무대옆에서 무용을 지휘하는 교원의 손세, 몸세를 보며 박자를 맞추어 춤을 추었다.

이렇게 춤을 배운 수양이와 진혁이가 무대에서 아름다운 룰동을 펼칠 때면 관중들은 그들이 청력장애자들이라는것을 감감 잊곤 하였다.

그들은 마치 무용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기라도 한듯 온몸으로 음악을 감수하고 춤을 추고 또 추었다.

조선장애인 예술협회 부원이며 그들의 무용지도원인 김선영은 수양이와 진혁이는 성격이 쾌활하고 예술적감수성도 매우 풍부하다고 하면서 때로 무대우에서의 실수도 하나의 형상처럼 무리가 없이 넘기는가 하면 무용 《시내가에서》를 비롯한 작품들에서와 같이 적지 않은 생활세부를 찾아 반영하기도 하는 창작적기질도 엿보인다고 하였다.

지난 10여년간 서로 위해 주고 이끌며 믿어주고 내세워주며 무용을 함께 하는 과정에 두 청년남녀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감정도 싹트고 자라났다.

2년전 그들은 한쌍의 다정한 부부가 되었다. 결혼식날 그들은 축복의 미소를 보내는 참가자들앞에서 명곡인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음악선율에 맞추어 쌍무를 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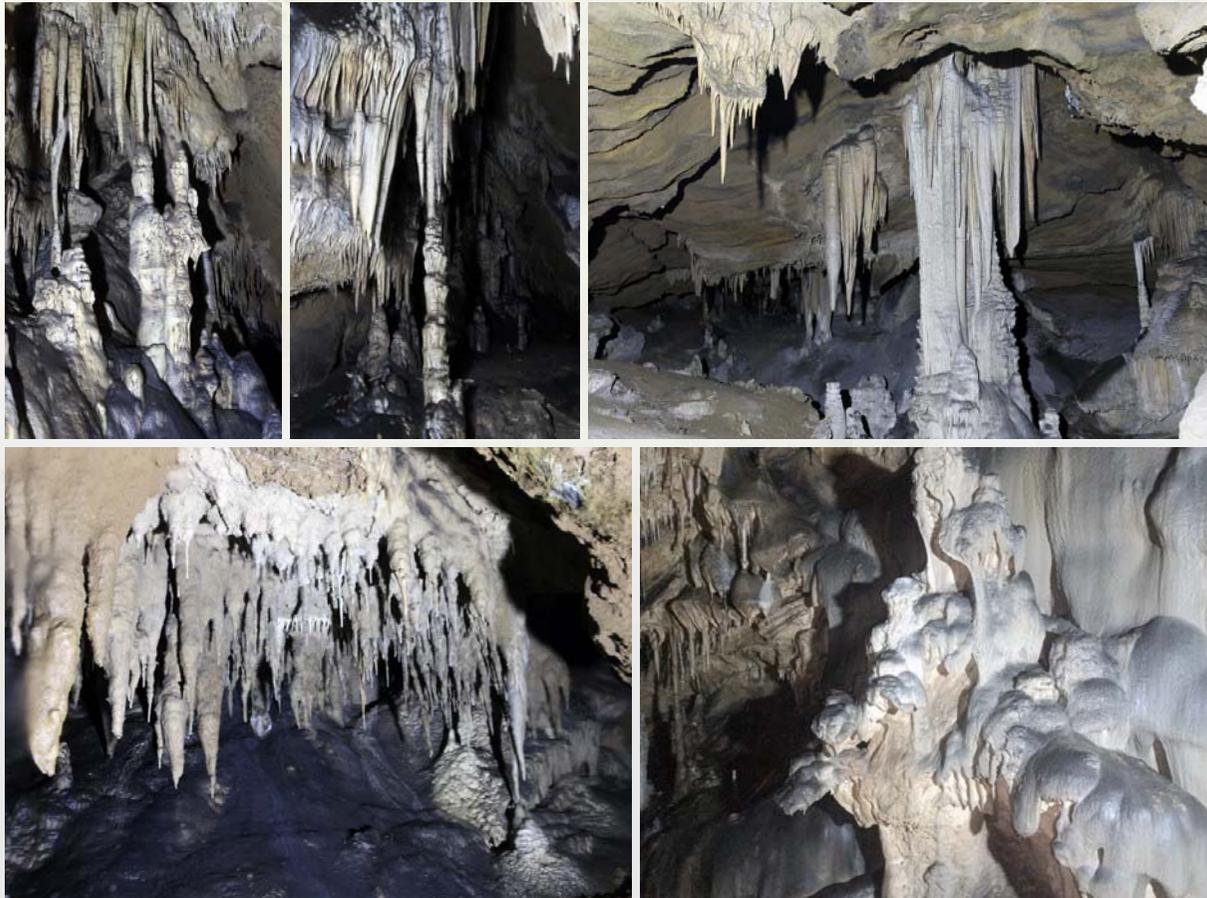
류진혁의 어머니 리옥숙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흠이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을 기울이고 자기의 품에 더 깊이 안아주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와 같은 장애인들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주며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었습니다. 진정 우리 조국은 공화국공민들 누구나가 행복하게 안겨사는 따사로운 어머니의 품입니다.》

글 연옥
사진 김영호

새로 발견된 이룡동굴

최근 함경남도 고원군 이룡리에서 관광적가치가 있는 자연동굴이 발견되었다. 기본굴의 길이가 2400m인 동굴은 5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였는데 Ⅲ 구역에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진 돌순과 돌고드름들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있어 특이한 경관을 이루고있다.



유모아

아들의 그럴듯한 대답

어떤 사람이 사슴 한마리와 노루 한마리를 살창을 맨 큼직한 상자에 넣어 친구에게 보내주었다. 선물을 받은 친구는 만족하여 어린 아들에게 물어 보았다.

《애야, 어느것이 사슴이고 어느것이 노루인지 알겠느냐?》

노루와 사슴을 분간할줄 모르는 아들은 인차 대답 하였다.

《노루옆의것은 사슴이고 사슴옆의것은 노루 예요.》

* *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 차복신고모 앞

보고싶은 고모님에게



고모님,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바뀌여지니 고모님의 건강이 몹시 걱정됩니다.

물론 자손들이 어련히 돌봐주고있겠지만 이 조카며느리도 언제나 고모님의 건강을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고모님은 나의 남편을 가문의 자랑이라며 누구보다도 사랑해주었고 늘 남다른 원심을 써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금에도 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모님이 제일 가까운 혈친으로 자리잡고있으며 한번이라도 더 만나보고싶은 심정뿐입니다.

그런데 《금수강산》편집부 기자선생님들을 통해 이렇게 편지로나마 문안인사를 전하게 되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평양에서 조국방문의 길에 올랐던 고모님과 뜻깊은 상봉을 한 때로부터 벌써 여러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고모님이 하던 말이 지금도 나의 귀전에 쟁쟁히 들려옵니다. 그날 고모님은 나에게 사회주의조국은 참으로 고마운 품이라고 곱씹어 말하였지요.

나는 지방중흥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의 참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고모님도 알다싶이 우리가 사는 숙천군은 열두삼천리벌과 더불어 사람들속에서 쌀고장이라 불리울만큼 농업이 군경제의 기본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러했던 우리 군이 지금은 나라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의해 모든 면에서 다각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올해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준공되어 숙천군의 공업토대는 강화되어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날로 좋아지고있습니다.

집집마다에는 기초식품을 비롯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갖가지 식료품들이 정상공급되고 상점들은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한 일용제품들과 세련된 형태미를 갖춘 계절옷들을 구입하는 사람들로 흥성이고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안의 농촌들에 사회주의농촌문명을 자랑하는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농민들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숙천군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나라의 고마움을 깊이 새겨안고 고향땅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장으로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해 모두가 떨쳐나섰습니다.

우리도 이 벅찬 현실에 발맞추어 새 문명, 새 생활을 마음껏 누리갈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애쓰고있습니다. 만이 국철이와 둘째 운철이는 나라의 지방발전정책을 관철하는데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겠다며 농촌건설장에 탄원했고 며느리들도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건설장에 보내주고있습니다.

나도 자식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애쓰고있지만 그저 마음뿐입니다.

고모님, 조국에 오시거들랑 우리 숙천군에도 꼭 와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지방이 변하고 숙천군사람들의 인식령역에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게 될것입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부디 고모님이 건강에 류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남도 숙천군읍 68인민반 리춘화조카며느리 올림



김학림

화폭에 선물을 담는 미술가

미술가는 누구보다도 다방면적인 지식과 창조적사색력, 풍부한 상상력을 소유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피라는 노력이 안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명화폭을 창작할 수 있다.

만수대창작사 출판화창작단 미술가인 공훈예술가 김학림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창작한 판화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퍼져있다.

판화들인 《얼씨구 좋다!》,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 《물레질소리》를 비롯한 작품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화폭속에서 류다른 감흥을 느끼게 한다.

《그림속에서 선물을 듣게 된다.》

《판화를 음미해볼수록 교향악의 울림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국내외에서 사람들의 반향을 종합해보면 김학림미술가는 음악에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된다.

예측그대로 그는 음악의 세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조국의 판록있는 예술단체인 국립교향악단에서 수석지휘자였던 김일성상계관인 인민예술가 김병화이다.

일본에서 나서자란 그의 아버지는 음악신동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조선사람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대학입학자격기회도 얻을수 없었다. 설음과 울분에 몸부림치던 그는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자기의 꿈을 실현할수 있었다.

체계적으로 음악공부를 한 그는 국립교향악단에서 관현악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 《그네뛰는 처녀》를 비롯한 수많은 음악작품들을 훌륭히 지휘형상하였다.

자식들에게 걸어온 인생행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는 김병화 2019년 촬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지휘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랜 시간 지휘하면서도 실수가 없을뿐 아니라 속도를 정확히 유지한다고 하시면서 오늘 그가 지휘하는것을 자세히 보니 확실히 그는 속도에 대한 개념이 밝다고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조국의 품에서 성공한 인생길을 걸어온 김병화지휘자는 맏이인 김학림이 대를 잇기를 바라였다.

성악배우였던 그의 어머니도 무대에 선 맏아들을 보게 될것을 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운명의 희롱인듯 그는 미술가가 되었다.

전공을 바꾼 자식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혼시하였다고 한다.

《네가 정 미술을 하겠다면 막지 않겠다. 그러나 명심해라.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자기의 고유한 맛을 살려야 한다. 고유한 맛이란 바로 민족성이다. 민족적인 맛을 살리지 못할바에는 예술계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 한생의 지론으로 되었다.

그는 평양미술대학에서 배움의 나래를 펼칠때에도, 졸업후 만수대창작사에서 창작생활을 할 때에도 민족적인 맛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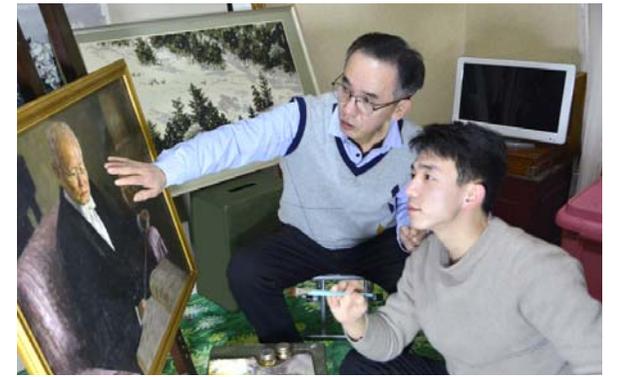
판화 하나를 창작해도 함축된 조형적표현으로 구도를 잡으면서 조선화의 기법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작품의 전체 화면을 정갈하고 산뜻하게 안겨오게 하면서도 창작가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방향에서 그리곤 하였다.

하여 판화 《백두의 행군길》, 《군밤, 군고구마》를 비롯한 작품들은 만수대창작사적인 기법전시회에서 1등을 하였으며 그가 창작한 많은 작품들이 국가소장품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칭찬 한마디 없었다고 한다.

언제인가 아버지가 지휘하는 관현악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



둘째아들과 창작토론을 하고있는 김학림

를 감상하던 그는 벼바다 설레이는 농촌과 농악무를 추는 농장원들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흥분을 누를길 없던 그는 자기의 창작적령감을 속사지에 제껴 옮겨놓았다.

이렇게 창작된 작품이 바로 판화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이다.

작품을 본 아버지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민족적인 정서와 음악적선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며칠동안의 모지름끝에 학림은 지금의 작품을 창작할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제야 정말 잘 그렸다고 민족적인 색이 짙고 절로 노래가 나온다고 처음으로 칭찬을 하였다.

뒤이어 창작한 그의 작품 《물레질소리》도 사람들을 놀래웠다.

전문가들도 구도에서 첫째가는 의의를 부여하고 독특하고 간결하면서도 명백하고 강한 조형적인 필치를 구사하여 형상하였다고 하면서 소박한 작품에서 교향악의 선율을 느낄수 있었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40여년간의 창작생활기간 판화, 수채화, 아크릴화, 뽀뽀라화, 펜화, 선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미술작품들도 창작하였다.

여러 차례 국가적인 대회들에 참가하고 해외에서 열리는 미술전람회들에 많은 작품들을 출품한 그는 오늘도 예술인가정의 후손답게 작품창작에 심혈을 쏟아붓고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고있다.

글 임향심
사진 리철

돌솥 송어탕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몇해만에 해외출장길에서 돌아온 친구는 나를 평양의 어느 식당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친구는 그동안 돌솥송어탕이 정말 먹고싶었다고 하면서 그걸 주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잠시후 우리의 식탁에 뜨끈한 돌솥송어탕이 한그릇씩 놓여지자 그는 자기가 해외에 있을 때 그 나라 사람이 언젠가 평양에 갔을적에 대동강 송어국을 인상깊게 먹었다는 말을 하는바람에 어릴적부터 맛을 들인 송어탕이 얼마나 먹고싶은지 감질이 날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솥에 담긴 송어탕은 별맛이었습니다.
 맛나게 송어탕을 들고난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송어탕을 제맛이 나게 하자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있나?》
 《그야 두말할것없이 돌가마에서 끓이는 것이지. 그래서 돌솥송어탕이라고 하지 않나.》
 아마 동포여러분도 이러한 물음을 받았다면 인차 대답을 할수 있게 되겠는지.
 이왕 이렇게 말쑤지려 뎌김에 우리는 돌솥송어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음식유산들 가운데는 평양의 4대음식으로 유명한 대동강송어국도 있습니다.
 송어국은 찬물을 두고 끓인다고 하여 일명 송어랭수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가마에서 끓인 국을 사발에 담은 송어국도 맛좋지만 돌솥에 직접 넣어 끓인 송어탕은 눈맛, 입맛, 영양학적가치에 있어서 그 맛이 더욱 좋습니다.

돌솥은 곱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돌솥은 광택이 있어 보기가 좋고 음식물을 넣어 끓이면 미량성분들이 우리나라와 인체에 좋은 작용을 할뿐 아니라 여기에 담은 음식은 인차 식지 않습니다.

돌솥에 넣어 만든 비빔밥이며 여러가지 고기와 물고기탕이 인기가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송어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송어는 바다연안과 강어구 및 강하류일대의 찬물과 민물이 섞인 곳에서 사는 물고기입니다.

송어라는 이름의 어원은 수어였습니다. 맛이 제일 좋은 물고기라는 뜻으로 《빼여날 수》자를 썼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력사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때인지 딱히 알수는 없지만 옛날 외국의 사신이 우리 나라에 와서 송어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맛이 참 좋다고 연방 감탄하다가 곁에 있는 통역에게 《이게 무슨 생선이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통역은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고 제격 《수어입니다.》라고 사신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사신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물에서 사는 것이 하도 많은데 하필 이 고기만을 수어라게 있소? 물에 있는 생선이 모두 수어이겠는데?》

사신은 조선사람들이 송어가 기막히게 그 맛이 좋아 《빼여날 수》자를 써서 부르는 것을 음이 같은 《물 수》자를 쓰는 줄로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이 길지 않은 력사이야기 하나를 통해서도 송어가에 예로부터 우리 나라 명산물로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졌던 물고기라는 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돌솥송어탕을 끓이는 방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이 좋은 송어의 비늘을 벗기고 깨끗이 손질하여 보기 좋게 토막냅니다.
 먼저 돌솥에 찬물을 적당히 붓고 송어토막과 통후추 여러문알을 료리용천에 싸서 함께 끓입니다. 송어는 기름진 물고기이므로 끓이면 국물에 누린 기름이 많이 뜹니다.

송어토막이 익으면서 국물이 일정한 정도로 자박자박해지면 간을 맞추고 썰어놓은 두부와 풋고추, 파, 고추가루 등을 넣어 한소끔 더 끓입니다.
 돌솥송어탕을 낼 때에는 구수하면서도 얼얼할 맛을 내는 송어탕우에 고수와 같은 향신료를 살짝 두고 백미밥과 김치 그리고 양념그릇에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을 담아 곁들입니다.

지난날 평양사람들은 귀한 손님들이 오면 대동강에서 잡은 송어로 국이나 탕, 어죽 등을 대접하는 것으로 레의를 지키었고 또 평양에 온 사람들은 그들대로 송어음식을 맛보아야 룡송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여기었다고 합니다.

《돌솥송어탕맛이 좋았습니까?》
 동포여러분은 평양에 다녀오시는 기회가 마련되면 해외에 계시는 친구분들께 평양에 갔다왔다고 자신있게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돌솥송어탕을 꼭 맛보십시오.

글 연옥, 사진 최은혁



상식

6월의 절기와 민속

6월의 절기로는 망종과 하지가 있다.
 망종은 24절기의 아홉번째 절기로서 대체로 양력으로 6월 6일이나 7일에 들며 하지는 그뒤에 오는 절기로서 양력으로 6월 21일이나 22일에 든다.
 우리 나라에서는 동지날에 가장 길어졌던 밤시간이 그후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여 하지날에 가장 짧아지며 낮시간은 1년중에 제일 길다.
 망종은 보리를 베고 벼모를 낸다는 뜻을 가지고있다. 예로부터 《보리는 망종전에 베라.》는 속담이

전해져오는데 이맘때가 되면 보리장마라고 하는 비가 내려 밀보리를 빠른 기간에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애써 지은 알곡을 썩일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망종이 되기 전에 밀보리가을을 제때에 하여 땀흘려가꾼 알곡이 허실되지 않게 하였으며 벼모내기를 하였다.
 하지는 계절적으로 보나 영농공정으로 보나 한해농사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 인민들은 6월의 절기에 따른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6월은 산나물도 많이 자라고 남새와 함께 울곡식도 수확하는 계절이므로 여러가지 산나물과 보리, 오이 등을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18세기 실학자였던 박지원이 쓴 책인 《파농소초》에 의하면 망종때 가을한 보리로 식초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절기에 여러 지방에서 취떡, 곰취나물 등을 만들어 먹었다.
 하지때 전반적지방에서 많이 만들어먹은 음식은 썩으로 만든 썩떡이다.
 당시 처녀애들은 이때를 전후하여 손톱에 봉선화물들이기를 즐겨하곤 하였다.

* * *

《나는 조선에서 진실을 보았다》

이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시기 우리나라에 왔던 한 영국기자가 쓴 련재기사의 제목이다.

당시 그는 조선에서 본 미제의 만행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후들후들 떨리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기사에 이렇게 썼다.

《...나는 영국신문 <일간 로동자>의 특파원으로서 직접 사실을 발굴해서 영국대중에게 보도하기 위해 조선으로 파견되었다.

나는 평생 미국이 <문명국>이라는 선전을 들으며 자랐고 일정하게 그 선전에 물젖어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시기 감행한 나치스의 만행을 풍가하는 미제의 살륙만행을 두눈으로 직접 보고서는 몸서리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조선에도착하기 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정신적준비가 없이는 마주할수 없는것들이었다.

...미국은 평화적도시들에 대한 야만적인 폭격을 감행하였다.

전쟁초기 강원도 원산시에 날아든 미국의 <B-29>대형폭격기들은 첫번째 대규모공습에서 수백t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무차별폭격으로 천수백명이 사망하고 도시의 북쪽 절반이 파괴되었으며 그로부터 얼마후에 감행된 폭격에 의해 도시 절반도 마저 파괴되었다.

결국 미제는 수많은 폭탄을 쏟아부어 군사적목표물도 없는 도시 하나를 없애 버리고 수천명의 사상자와

수만명의 전재민을 발생시켰다.

...포로된 미군병사들도 저들의 폭격만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포로된 한 병사는 저들의 기총사격에 몇번이나 죽을번했다고 하면서 <후방에서 어떤 조종사에게서 들으니 그자들이 받은 명령은 무엇이든 움직이는것은 멈춰라, 멈춰있는것은 날려버리라였는데 그때는 룡담인줄 알았으나 내 눈으로 농민들이 죽어가는것을 보니 야만적이라는것을 느꼈다.>고 하였다.

...미제의 악마적인 잔혹함도 상상을 초월하였다.

어느한 계곡의 평평한 토사로 된 땅에 미군의 탄피가 수두룩이 쌓여있었다. 그밑에는 수천명의 시체가 깔려있었다.

우리일행중 한명이 디딘 땅이 꺼지면서 빠져들었는데 썩어가는 살덩이들이 무릎우에까지 올라왔다. 거기에는 밀랍같은 손과 발, 무릎, 팔꿈치, 이그러진 얼굴, 총알에 맞고 터진 머리들이 흠에 묻혀있었다. ...》

미제의 야수성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대중적학살과 고문들, 세군전만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신천군에서만도 미제는 공화국 정권하에서 살았다는 단 하나의 리유로 무고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 가족을 벗겨죽이고 끊는 물에 빠뜨려죽이였으며 녀성의 젖가슴을 도려내어 죽이고 입에 카바이드를 넣고 불을 달아 죽이는 등 치떨리는 만행들을 감행하였다.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군내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학살되는 참변이 일어났다. 신천군뿐 아니라 미군의 군화발이 닿는 곳은 인간살륙의 도살장으로 화하였다.

당시 국제민주비블가협회조사단의 한성원은 단편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악마인들 미제야수들보다 더하겠는가고 하면서 미제의 만행을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보았더라면 그들도 아마 아연해하였을것이라고 절규하였다.

이렇듯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이 땅에서 감행한 살륙만행은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특대형범죄로서 당시만이 아니라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도 세인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 * *

미제는 평화적마을들을 폭격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첫 봉건국가의 시조왕 동명왕

동명왕의 이름은 주몽 또는 추모, 도모, 중모라고도 하였다. 통치년간은 B.C. 277년부터 B.C. 259년까지이다.

전설에 의하면 동명왕의 아버지는 하늘(하느님) 또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해모수였고 어머니는 하백(룡왕)의 딸 류화가 되었다고 한다.

그의 부모들은 실제상 압록강 중류일대의 큰 지방세력자였다.

류화는 부모의 승인없이 결혼한것으로 하여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부여왕궁에 가있게 되었고 거기서 아들 동명왕을 낳았다.

동명왕은 어릴 때부터 훌륭한 무예의 소유자였고 백발백중의 명궁수였다. 그는 7살때 활을 쏘는대로 다 맞혔으며 그후에는 날아가는 새도 한 화살에 두마리씩 썩떨구었고 백보밖에는 걸어놓은 자그마한 가락지도 단번에 명중시켰다.

주몽이란 이름도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소년시절에는 활쏘기의 명수였고 청년기에 들어와서는 기골이 장대한 힘장수로 되었다.

그의 재주와 용력이 비상한것을 시기한 부여왕자 대소가 그를 질투하던 나머지 죽이려 하였으므로 그는 뜻이 맞는 오이, 마리, 험보 등과 함께 부여를 떠나 남으로 구려국

(졸본부여)땅에 갔다.

그는 그곳에서 지방자치세력과 손잡았다. 처음에는 과루부의 우두머리로 되고 이어 구려 5부의 통치자로 되었다.

그는 B.C. 277년에 나라이름을 고구려로 고치고 봉건적인 통치제도와 질서를 수립하여 나갔으며 졸본성에 첫 수도를 정하였다.

그는 령토확장에 커다란 주의를 돌려 왕이 된지 10년안에 이웃에 있던 비류국, 행인국, 북옥저를 통합하여 큰 나라를 만들었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우리

나라에서 첫 봉건국가인 고구려의 창건자로 되었으며 강대한 고구려의 기틀을 마련한 시조왕으로 되었다.

그가 나라를 세운지 19년만인 B.C. 259년에 부여에 있을 때 결혼하였던 처 레씨와 아들 유류가 찾아왔으므로 유류를 태자로 삼았다.

이해 9월 동명왕은 갑자기 병을 만나 사망하였다. 그가 죽은 후 고구려가 평양으로 기본수도를 옮기면서 그의 무덤도 오늘의 평양시 려포구역 룡산리로 이전되었다.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인 고구려의 시조동명왕은 아시아의 강국으로 천년의 빛나는 년륜을 아로새기게 한 고구려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 * *





조국의 역사유적을 찾아

정방산의 옛성터와 성불사

얼마전 우리는 정방산을 찾아가는 모란봉관광사의 관광객들과 동행하였다.

평양사에서 남쪽으로 80리 정도 가느라니 황해북도 사리원 시입구에 멋들어지게 서있는 정방산호텔이 안겨왔다.

명산의 자연환경에 어울리면서도 조형예술적으로 손색이 없이 건설된 호텔은 정방산유원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겨맞아주는 듯하였다.

호텔앞에서 내려 그곳 안내원들의 친절 한 봉사를 받으며 방들에 자리를 잡은 관광객들은 잠시 후 운동복차림을 하고

정방산유원지로 향하였다.

우리를 이끄는 관광안내원처너는 맑은 목소리로 정방산은 예로부터 독특한 자연경치로 하여 유명하였다고 하면서 옛 문헌에는 《해서(오늘의 황해남북도)에서 경치가 아름답기로는 황주 정방산이 제일이다.》라고 써여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면서 정방산의 경치는 갖가지 희귀한 꽃들이 만발하는 봄, 록음질은 여름,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 신묘스러운 실경으로 특이하다고 하면서 특히 지금과 같이 살구꽃과 배꽃 등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나 산을

뒤덮을 때면 마치도 꽃구름이 피어 오르는 듯하고 산발들이 꽃구름우에 등실 떠있는 것 같기도 하여 정방산의 봄경치를 으뜸으로 일러왔으니 《정방산의 경치를 알려거든 꽃피는 봄날에 오라.》는 말까지도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정방산을 휘감으며 아아하게 뻗어간 옛 성벽을 바라보면서 걸음을 다그치고 있는데 머리우에 기와를 엮고 틀지게 서있는 고색질은 문루와 그아래 성문이 보이였다.

둘레가 12km(30리)에 높이가 5~6m나 되는 정방산성은 고려

시기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으로서 조선서해안일대에서 남북으로 통하는 기본통로를 막아선 황해도지방의 제일가는 요새로 일러왔었다.

정방산성이 세워지던 당시에는 성문이 동, 서, 남, 북 사방에 있었고 이 네 성문들에 다 웅장하고 화려한 문루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나라 성문 축대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의 하나로 알려져있는 남문루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남문을 지나니 1879년에 정방산성 성장이며 이름난 장군이었던 김성업의 업적을 찬양한 비가 세워져있었다.

그 비의 곁에서는 전장을 달리던 옛적 장수들의 군마이런듯 늘씬한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그곳 가까이에서 견마잡이인듯한 청년에게로 다가간 한 관광객이 《옛성터아래에서 말을 달리느라 마치 우리가 고려의 명장이라도 된 듯하겠지?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몇해동안 익혀온 기마술을 여기 정방산성에서 한번 파시해보자구.》라고 넌지시 말을 건네었다.

견마잡이 청년의 동의 를 얻은 여러 손님이 어느새 익숙된 숨씨로 말우에 올라 눈깜박할

사이에 성문밖을 벗어나는 것이 었다.

그들이 자연환경에서 승마의 쾌감을 한껏 맛보고있을 때 일행은 성불사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절앞에 이르니 나이 지숙한 그곳 주지가 우리를 기다리고있 은듯 반갑게 맞이하였다.

898년에 처음 세워진 성불사에는 석탑을 중심으로 앞에는 극락전, 오른쪽에는 응진전과 명부전, 기적비가 서있고 왼쪽에는 운하당, 뒤에 청풍루가 자리 잡고있었다.

이 절의 기본건물이며 중심 건물인 극락전에는 아미타불상과 관세음보살상, 대세지보살상이 있었다.

극락전은 배부른 기둥우의 천정과 지붕, 금단청과 조각 장식 등이 우수한 단층건물이 었다.

극락전을 지나 응진전으로 관광객일행을 이끌어가던 주지는 두채사이에 나있는 소로길로 먼저 접어드는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 물맛이 아주 좋은 샘터와 유명한 기생이 심은 한그루의 향나무가 유표하게 있었다. 그 향나무는 곧추 선 모양이 너무도 아름다왔는데 나무줄기가 특이한 모양새를 이루고있는 것으로 하여 관광객들의 호기심

을 끌었다.

주지는 우리에게 《이곳 샘터에서 맑은 샘물을 바가지로 직접 떠서 시원하게 마시고나서 향나무를 한가슴에 안으면 몸에 있던 온갖 잡병이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진짜 성불사에 가보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관광객들은 주지의 말대로 저저마다 샘물을 마시기도 하고 가벼운 싱갱이질속에 향나무를 한아름에 안아보기도 하며 즐겁게 웃었다.

잠시후 우리는 1327년에 다시 지어 고려시기의 건축형식이 두드러진 응진전에서 석가모니의 500명의 제자들을 형상한 불상들을 흥미있게 본 후 명부전을 거쳐 기적비앞에 멈춰섰다.

주지는 기적비에 구체적으로 서술된 역사이야기를 구수하게 들려주었다.

관광을 통해 우리는 온갖 꽃이 만발하여 산경치가 아름다울뿐 아니라 애국명장의 전설도 담겨져있어 정방산 옛 성안의 국보적인 역사유적 성불사가 온 나라 인민이 즐겨 찾는 곳의 하나로 나날이 유명해지고있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글 연옥
사진 김영호



정방산의 역사유적들을 돌아보는 해외동포들



참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